



기적의 발걸음

The Miraculous Step

Season 2.
시민걸음탐구의 확장

창원예술교육랩 지원사업



기적의 발걸음

The Miraculous Step

Season 2. 시민걸음탐구의 확장

차 례

01. 2023년 시민걸음 탐구생활	8
02. 연구원 소개	9
03. 연구 과정	10

04. 어린이 연구원과 함께한 시민걸음 탐구생활	14
05. 어린이 연구원 개별 걸음 연구 결과	16
06. 어린이 연구원 그룹 걸음 연구 결과	22

07. 2차년도(2023) 연구 총정리	58
08. 향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59
09. 기적의 발걸음 전시 현장	62
10. 예술 기반 걸음 탐구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교안	76

01. 2023년 시민걸음 탐구생활

Season 2. 시민걸음 탐구의 확장

걷는 순간,
공간과 시간을 넘나들며
우리는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한다.

걷는 행위는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삶을 아름답게 하는 특별한 예술이자 여정으로써,
'걸음'을 통해 나 자신이 주체가 되고 감각하며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으로 지난 22년 11월부터 창립 '시민걸음탐구생활'은
예술치유, 음악교육, 건축학, 인류학, 디자인, 문화예술기획, 사진, 인류학 전공의
8인 연구원과 도심 속 걸음의 리듬 분석을 시작으로,
아토크래피(A/R/Tography)*연구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의 발자취를 남겼다.

2022 창립 전시 <지금, 당신의 걸음은>에 이어,
23년 '시민걸음 탐구생활'에서는
예술치유, 음악교육, 건축학, 문화예술기획, 연극, 글쓰기, 시각예술 분야의
7인 연구원이 다시 재구성되어 RSVP Cycle과 라반의 움직임 분석이론을 기반으로,
'걸음'과 관련한 지역 특화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했다.

본 연구를 통해 '걷기'는 물리적 수단의 행위가 아닌,
자기 스스로 감각을 인지하고 보다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의 움직임으로써,
일상에서 지속 가능하고 실천적인 예술적 경험임을 공유하고자 한다.

*예술적 형식을 활용하지만 결과물이 아닌 삶의 통합, 협력적 실현, 지속적 연구과정이 강조되는 연구방법론

02. 연구원 소개

1차년도(2022) 연구진 소개

이름	역할	활동분야	한줄소개
오주현	랩장	부드러운 리더십	#예술 #치유
윤혜정	책임연구원	일상 탐험가	#음악 #결합
김주영	전문연구원	무심한 듯 세심하게 바라보기	#문화인류 #소수민족
박정은	전문연구원	어쩌다 한번은 진취적이고 싶다	#건축 #도심재생
송진주	전문연구원	경험에서 오는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자	#기획 #전시
정란	전문연구원	보이는 건 다 흥미롭다	#아카이브 #사진영상
정다운	전문연구원	배우고 행동하고 나서야 생각하고 다시 배우는 사람	#인지학 #의학
김나라연	전문연구원	다양한 관점으로 융합과 결합을 시도하자	#패션 #기획

2차년도(2023) 연구진 소개

이름	역할	활동분야	한줄소개
오주현	랩장	세상에 변화의 씨앗을 심는 예술치료사	#예술치료 #공동체예술 #표현예술
변가람	책임연구원	여러 가지 하는 N잡러	#글쓰기 #국문학 #아카이빙
김은정	전문연구원	한 걸음씩 다가가는 음악치료사	#음악치료 #커뮤니티뮤직 #표현예술
박유정	전문연구원	건강한 우리를 추구하는 연극인	#연극 #연극치료 #배우
박정은	전문연구원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건축가	#공간기획 #건축디자인 #커뮤니티예술
송진주	전문연구원	예술가의 마음을 읽고 표현하는 큐레이터	#문화예술기획 #전시기획 #시각예술
조민영	전문연구원	문화예술과 관람자를 친밀하게 이어주는 도슨트	#문화예술기획 #전시해설 #문화예술강의

03. 연구 과정

04. 2023. 12

공리소문다 <수학하는 몸> 스터디

이 책은 강원도 화천의 시골 마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리서치그룹 '공리소문다'가 진행한 연구과정을 공유한 결과물이다. 이들은 '수학'을 통해 인간과 자연, 현실과 가상, 생명과 비생명, 의식과 비의식의 경계를 탐구하며, 몸을 통한 수학적 체험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라반의 움직임 에포트 체계와 바르테니에프 기초원리를 기반으로 한 몸의 움직임과 수학적 체계를 연결시키며, 예술가들은 수의 세계를 탐구하고 몸을 통해 수학적 개념과 의미를 시각화한다. 또한, 일상 생활과 수학의 관련성, 정서와 몸에서의 경험, 시간과 공간에서의 수학적 작동 등을 다루며, 예술을 통해 새로운 이해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여정을 기록했다.

<Walking with A/r/tography> 스터디

아토그래피(A/r/tography)*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걷기에 대한 탐구를 다룬 책이다. 아토그래피와 걷기에 대한 탐구가 어떻게 실행되고, 이론화되고, 경험되고, 확장되고, 개념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걷기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고민하고, 아동들이 탐색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한 디렉션, 도구, 매체 등 다양한 논의로 확장하였다.

*예술적 형식을 활용하지만 결과물이 아닌 삶의 통합, 협력적 실현, 지속적 연구과정이 강조되는 연구방법론



03. 2023. 11

워크숍 <예술기반 걷기를 통해 도시자원으로 환원하는 방법> 개최

2022년부터 이어진 시민결함 탐구생활 연구의 중간보고이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을 찾기 위해 진행된 워크숍이다.

RSVP와 도시의 회복적 자원의 연결, 국내 및 해외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졌다. 워크숍 참여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와 창조성을 구하고,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프로그램 대상자와 장소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05. 2024. 01

라반 무용동작분석 워크숍

라반 무용 동작 분석을 기반으로 움직임 에포트(Effort)를 탐구하고, 표현예술 치료 및 예술기반 탐구를 통해 걷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랩원들은 함께 춤을 추고 시를 쓰며 에포트(Effort)와 셰이프(Shape) 등 라반 움직임 이론의 다양한 요소를 몸으로 직접 경험했다. 또한 다양한 감각과 정서를 가지고 걸어보고, 예술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과정을 가졌다. 라반 동작 분석을 통해 ADHD아동의 움직임 특성을 익히고, 움직임과 공간, 스토리텔링으로 응용 및 확장하며, 걷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완성하였다.

어린이 연구자와 걷기 및 예술 작업

학교와 연계하여 총 5명의 어린이 연구자를 모집하였다. 먼저 A어린이와 일주일 동안 걷기 및 예술 작업을 함께했다. A어린이가 걷고 싶은 장소와 시간을 직접 선택하게 하여 주체성을 경험하도록 하고, 걷은 후의 호흥과 심장 박동 등의 감각을 그림으로 기록하여 스스로의 몸을 감각하게끔 했다. 그 후 4명의 어린이들이 합류하여 시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에 집중하며 걷은 후 예술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시민걸음 탐구생활



01. 2022. 11~2023. 02 (1차년도)

감각 깨우기 작업 <리듬 분석> 스터디 & 아토그래피 연구 & 걷기 & 아트워크 작업
리서치 기반 작업 리서치 기반 워크숍 및 걸음에 대한 철학적 고찰
아카이빙 전시회 <지금, 당신의 걸음은>



02. 2023. 10 연구 시작

RSVP cycles 스터디

미국의 환경 건축가이자 조경가인 로렌스 할프린(Lawrence Halprin)은 그의 아내이자 무용가인 안나 할프린(Anna Halprin)과 함께 RSVP cycle*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과정 지향적인 사회에서 다양한 구성원이 항상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외부의 은밀한 조작 없이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각자의 고유성과 창조성을 발휘하고,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각과 느낌도 공동체의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 걸음 탐구생활에서는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RSVP cycles을 기반으로 광주 지역의 자원 탐구하기 위해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 공동창조 과정으로서 R.S.V.P(자료_스코어_실행에 기반한 평가_실행의 순환)의 일부분이다.

Resource: 개인적, 지역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주어진 상황 Scores: 진행과정을 따라 발생 하는 활동을 발생시키는 틀 Performance : Resource, Scores를 이용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Valuation(Valu+Action) :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행위를 바꾸고, 종합하고, 다듬는 것을 강조하면서 과정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활동과 성취를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 하는 것으로서 결정하고 종합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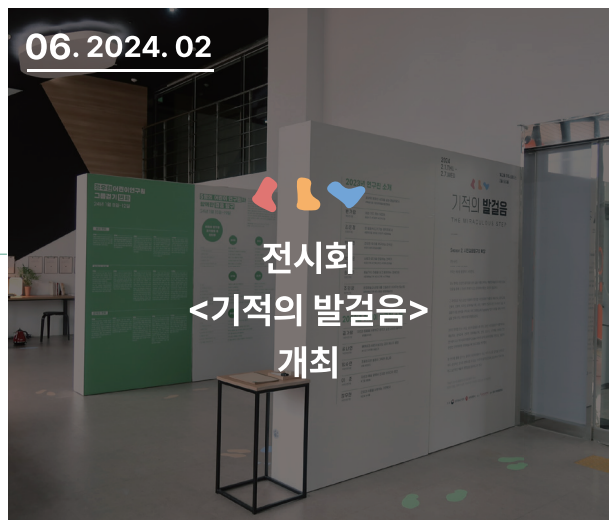


<걷기의 인문학> 스터디

리베카 솔닛의 <걷기의 인문학>은 '걷기'라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의 철학적이고 창조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탐색하는 책이다. 솔닛은 역사에 기록된 다양한 인물, 정전, 사상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여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철학적 모티프에 대한 새로운 답안을 제시한다. 책은 걷기의 의미, 걷기와 철학자들의 관련성, 걷기의 과학적 측면, 순례, 도시에서의 걷기, 여성들의 걷기, 행진, 축제, 혁명과 걷기의 정치적 의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걷기라는 행위가 인간에게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탐구한다.



06. 2024. 02



04. 어린이 연구원과 함께한 시민걸음 탐구생활

05. 어린이 연구원 개별 걸음 연구 결과

04. 어린이 연구원과 함께한 시민걸음 탐구생활

4-1. 어린이 연구원과 함께한 시민걸음 탐구의 목적 및 실행과정

어린이 연구자, 그들의 시선

<어린이 연구원과 함께하는 시민걸음탐구의 목적 및 실행과정>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걷기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창조성이 모였다. 우리의 시선이 향한 곳은 사회가 만든 ADHD라는 틀과 낙인, 그 안의 아이들이었다.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적용받는 '대상자'의 개념에서 벗어나 '어린이 연구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걷고, 탐구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걷고 싶은 장소와 시간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주체성을 경험하고 걸을 때의 호흡과 심장박동 등을 그림으로 기록하여 나의 걸음과 몸을 감각한다.

그 후 4명의 어린이들이 더 합류하여 시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에 집중하며 걷는다. 그 경험과 정서를 담아 예술 작품을 만든다.

창의성, 사람에 대한 직관력, 정서적 민감성, 살아있는 것과의 교감, 높은 에너지 ADHD라는 진단을 받은 아이들의 공통적 특별한 재능들이 하나하나 발현되는 순간 걷기 예술 탐구 과정이 공동체 내에서 건강한 자원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다. 어린이 연구자들의 시선을 빌려 걸음의 의미, 걸음이 주는 힘, 걸음으로 연결된 우리를 만난다.

어린이들의 걷기 예술 과정 및 경험이 도시의 자원으로 환원되어, 지역사회까지 확장되고 연결되기를 바란다.

4-2. 어린이 연구원 소개



김가람

#동물 #자연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고 생각이
깊은 미래의 철학자



김나연

#시쓰기 #무용 #글쓰기

배려심과 사랑이
넘치는 긍정 에너지 샘터



양수연

#꽃 #강아지

조용하지만 열정이
가득한 꿈나무



이 준

#그림 #탐험

자연과 예술 앞에서
진지한 아이디어 창고



정우현

#곤충 #식물

곤충과 식물을
사랑하는 자연박사

05. 어린이 연구원 개별 걸음 연구 결과

5-1. 연구 설명

연구 일시 2024. 01. 08. - 12. /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개인 연구 작업)

연구 장소 월계초등학교, 첨단아미둘레길, 임방울대로 공원길

연구 목적 지난 10월부터 연구한 RSVP 및 라반의 움직임 분석이론을 기반으로, 신체·감정의 균형이 필요한 아동과 매일 함께 걸으면서 에포트 분석을 통해 감각 및 정서 변화 추이를 보고자 함.

연구 내용 처음에 A어린이와 함께 걸을 장소를 '첨단아미둘레길'로 정해, 매일 다양한 길을 걸음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관찰하고자 했다. 그러나 A어린이가 어린이 연구자로서 함께 걸음연구에 참여하면서, RSVP 접근법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길을 걸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계획 수정되었다.

5-2. 활동사진



5-3. 작품



A어린이

걸음의 감각

21×29.7cm / 17pcs / 종이, 색연필

걸을 때의 감각을 기록했다. 호흡, 심장 박동, 피부의 열감, 생각 등 매일의 감각이 그림으로 표현되었다.



A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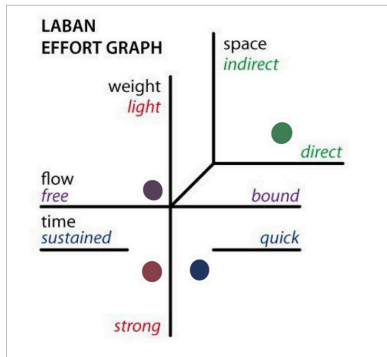
걸을 때 보이는 것들

가변설치 / 나뭇잎, 솔방울, 열매 등 18종

1/11, 10:00~12:00, 첨단아미둘레길 및 임방울공원
걸음으로 비로소 발현된 나와 너, 걸음으로 연결된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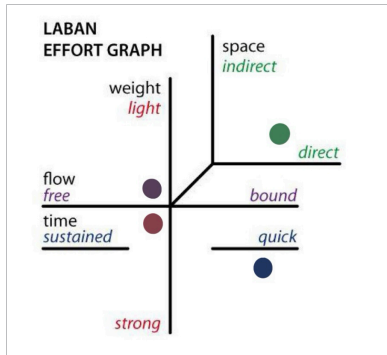
5-4. 에포트 분석

총 5일간의 개인 연구 작업을 통해, A어린이가 평소보다 더욱 집중력 있게 몰두하고, 자신의 감정을 페이스대로 조절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A어린이 자신에게 어린이 연구자라는 사명감을 주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연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걷게 해서이지 않을까 싶다. 라반의 에포트 분석에 따라서 무게, 공간, 시간, 흐름의 추이를 보면, 아이의 본래 걸음에서는 느리고 무거우며, 목적성에 따른 수단으로서 걸어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산책로 길을 걸을 때면, 각각 다른 땅의 질감과 방향, 냄새, 다양한 동식물 등 도심 속 산책로를 통해서 과거부터 가져온 기분 좋은 추억과 오감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많았다. 이번 개인 연구 작업에서 A 어린이는 자연 풍경과 함께 호흡하고 걸으면서 달라지는 신체 감각의 변화를 느끼며, 평소 자신이 의식하지 않았던 감각을 깨닫는 과정을 갖게 되었다. 이는 다소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어려웠던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자기 신체 감각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 보다 긍정적으로 감정적 충동을 극복해 내고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8 (1) A어린이의 본래 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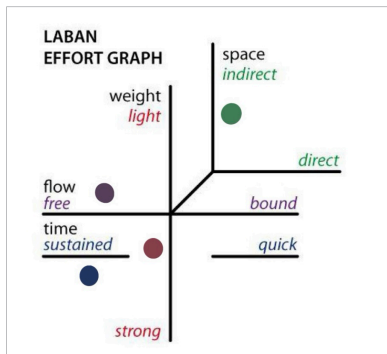
A어린이의 본래 걸음은 다소 무거우면서 적당한 속도감있게 목표하는데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편이다. 평소 단순활동을 위한 걷기 보다는 학교나 학원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루에 평균 50여분 걷는다.



1/8 (2) A어린이의 첨단아미돌레길 첫 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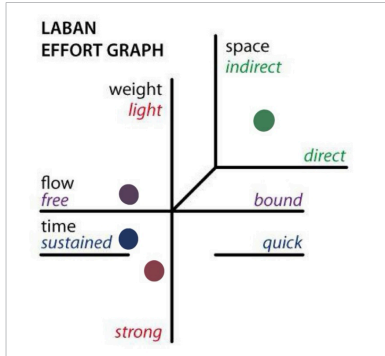
A어린이가 첨단아미돌레길에서 처음으로 걸었을 때,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다소 가벼운 발걸음으로 빠르게 최선을 다해 걷기 시작했으며, 아미돌레길 1번 부터 5번 길까지 자신이 가고자한 방향으로 진취적으로 향했다.

PM 12:37-12:57 (약 20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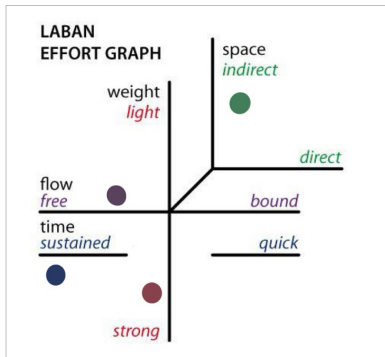
1/8 (2) A어린이가 좋아하는 걸음

A어린이가 좋아하는 걸음대로 걷기 시작하면서, 다소 걸음이 느려지고 전보다 살짝 무게감을 지닌 채 좀 더 자유롭게 걷기 시작했다. 기존 걷는 부분의 길보다 자신이 밟고 싶은 곳을 따라 솔방울을 발견하면 신나게 밟으면서 여유롭게 걸었다. PM 01:15-01:45 (약 30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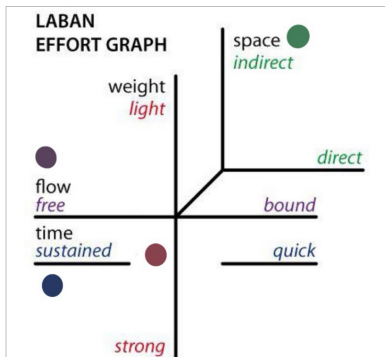
1/9 A어린이가 좋아하는 '자연의 길' 걷기

A어린이가 좋아하는 "자연의 길"을 걸으면서 평소보다 편안하고 여유롭게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걷다가 새가 나타나거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식물이 등장하면, 자유롭게 느낌 따라 발걸음을 멈춰서 그 모습을 감상하며 설명을 했다. 체중이 실어져서 걷는 걸음마다 조금은 강하고 무겁게 발바닥을 딛고, 계단을 오를 때 특히 힘이 실어지면서 다소 지친 기색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어린이는 천천히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좋아하는 길을 걸었기에, 오늘 가장 즐겁고 신난 반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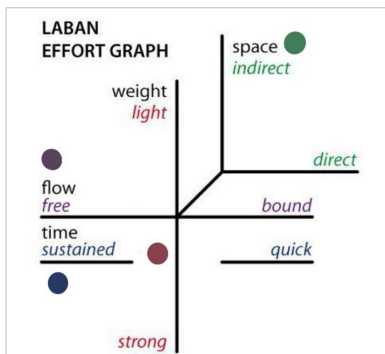
1/10 A어린이의 '자연의 길' 다른 길 걷기

A어린이가 좋아하는 '자연의 길' 반대편 방향으로 천천히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걸었다. 걷다가 한 번씩 멈춰서 나무나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기도 하고, 옆에 세워진 나무 펜스를 손으로 한 번씩 만지작거리면서 자유롭게 걸었다. 며칠 전에 A어린이가 발을 다친 게 통증이 생겼는지, 발걸음이 많이 느리고 무거우며 다친 오른발에 무게가 실어졌다.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어린이는 걷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 보였지만, 다리 통증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작정 걸으려고만 해서 걷기를 도중에 중단하였다. 10:15-11:07 (약 22분 소요)



1/11 A어린이의 '자연의 길' 다른 길 걷기 (사진촬영)

A어린이가 1월 10일에 걸었던 임방울공원길을 '자연은 함께 있다'길(이하 자함길)로 명명했다. 걷기 연구에 참여하면서 전보다 더욱 특별해진 길을 걸으니, 유독 기대감에 설레면서 자함길로 향했다. 걷는 길마다 느껴지는 A어린이만의 걸음 가이드를 생각하면서 이 길 저 길을 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나무 주변을 뱅그르르 돌아보기도 하고, 산책로 땅을 밟기보다 나무 주변 폭신한 땅을 밟으면서, 발걸음 가벼이 여기저기 자유롭게 걸어 다녔다. 전날 선생님들과 함께 한 즐거운 추억 덕분에인지, 오늘 유독 가볍고 빠른 리듬의 발걸음으로 자함길을 다녀왔다.



1/12 A어린이의 '자연의 길' 임방울공원 탐방

A어린이가 좋아하는 '자연의 길'의 임방울공원을 평소와 다른 길을 통해 갔다. 같은 장소의 공원이지만 이번엔 다른 길을 따라서 자연관찰 준비물을 들고 걷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는 낙엽, 열매, 돌, 흙 등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걷는 산책로 너머 나무 근처로 다가가기도 하고, 황토길을 밟기도 하며 시선 따라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걸었다. 체중으로 본래 무겁고 강하게 걷는 편이지만, 이번 활동에서 다소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으며, 천천히 걷다 멈췄다를 반복하며 자유로운 걸음 형태를 보였다. A어린이가 좋아하는 자연관찰을 하면서 새로운 생물이거나 현상을 발견하고 선생님들과 다 함께 걸으니,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06. 어린이 연구원 그룹 걸음 연구 결과

6-1. 연구 설명

연구 일시 2024.01. 15. - 19. /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그룹 연구 작업)

연구 장소 월계초등학교, 첨단아미둘레길, 임방울대로 공원길

연구 목적 지난 10월부터 연구한 RSVP 및 라반의 움직임 분석이론을 기반으로, 아동들간의 신체, 감정, 에너지, 사회관계성 변화추이를 Shape qualities를 통해 관찰 분석하고자 함 .

연구 내용 지난 10월부터 연구한 RSVP 및 라반의 움직임 분석이론을 기반으로, 5명의 어린이 연구원 김가람, 김나연, 양수연, 이준, 정우현과 연구원 김은정, 박유정, 박정은, 조민영이 첨단 아미둘레길 주변을 걷고 탐색하였다. 집과 학교 등 일상에서 가까운 자연을 걸으며 어린이 연구원들의 신체적 변화를 감각하고 정서 변화와 그룹 안에서의 관계 맺기 추이를 관찰하고자 했다. 첫날은 걷는 몸의 오감과 감정에 집중하였으며 3일간은 걷는 길의 느낌을 시각, 청각, 촉각으로 감각하며 예술로 표현하였고, 마지막 날은 그동안 걸으면서 느꼈던 느낌과 감각을 공동예술로써 마무리하였다.

6-2.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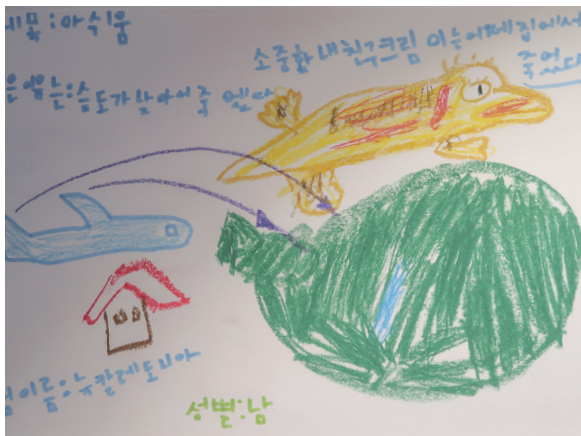


6-3. 작 품

1월 15일 월요일

첨단 아미돌레길 생태공원 탐색활동

건기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
몸의 느낌을 기반으로
감각 깨워 연구 대상 찾아보기
(스케치북에 자신의 연구대상 그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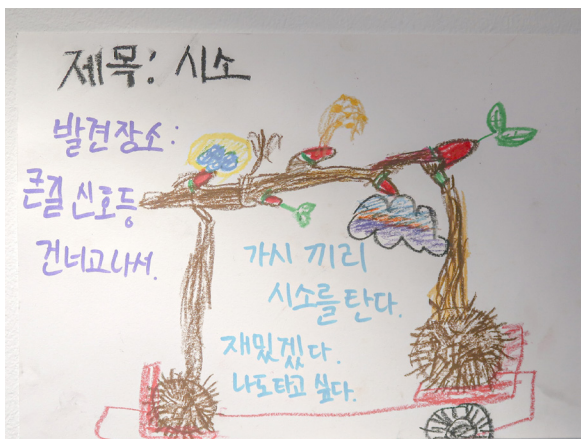
김가람

외로움

35×25.5cm

종이, 오일파스텔, 크레파스, 색연필

집에서 기르던 도마뱀 크림이를 하늘
나라로 보낸 슬픈 마음과 아쉬움을 표
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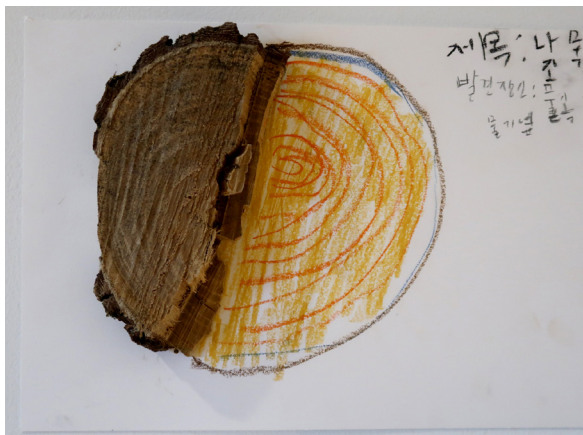
김나연

시 소

35×25.5cm

종이, 오일파스텔, 크레파스, 색연필

걸으면서 채집한 열매와 나뭇잎을 보고
사이좋은 친구관계가 연상되어 그림과
시로 표현함



양수연

나무 조각

35×25.5cm

종이, 오일파스텔, 크레파스, 나무조각

반토막이 된 나무 조각이 안쓰럽고 나머지 반을 그림으로 그려서 완성시켜주고 싶어 그림



이준

반짝이 거미

35×25.5cm

종이, 오일파스텔, 크레파스, 색연필

걸으면서 찾은 나무 조각 안에 거미가 튀어나와 놀랐고 그게 인상 깊어서 거미를 그림



정우현

소중한 내 새끼 덩덤이

35×25.5cm

종이, 오일파스텔, 크레파스, 색연필

생태공원의 습지와 나무 사이를 걸으면서 자연스레 덩덤이가 떠올랐고 내가 가장 잘 아는 덩덤이를 더 연구해 보고 싶어 그림

1월 16일 화요일

첨단 아미돌레길 숲 탐색활동

걷고 있던 숲길에서 느꼈던 시각, 청각을 중심으로
감각하고 연구 대상과 연결하여 예술로 표현하기
(사진과 소리, 흙바닥그림, 단어로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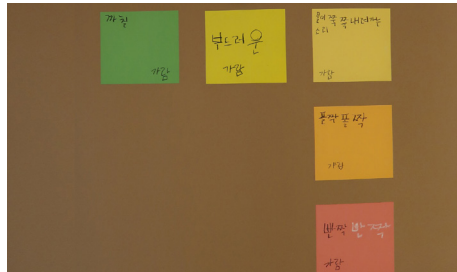


김가람

스편지밥 시리즈

가변설치 / 흙바닥, 나뭇잎, 나뭇가지, 조개껍질

평소 좋아하던 스펀지밥을 자신이 걸었던 길에 새겨 넣고 싶은 마음을 표현함



김가람

색종이에 쓴 5개의 느낌

자신이 숲길을 걸으면서 보고 느꼈던 느낌을 단어로 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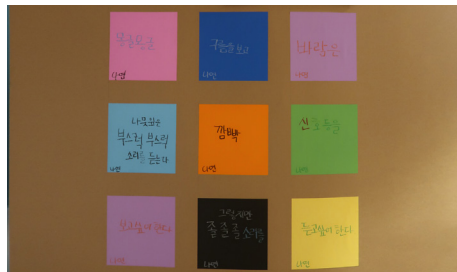


김나연

머리띠를 쓴 나연이

가변설치 / 흙바닥, 나뭇잎, 나뭇가지

자신이 숲길에서 느꼈던 걸음의 느낌을 단어로 표현함



김나연

색종이에 쓴 9개의 느낌

15×15cm 9pcs / 색종이, 크레파스

자신이 숲길을 걸으면서 보고 느꼈던 느낌을 단어로 표현하고 단어를 모아 시를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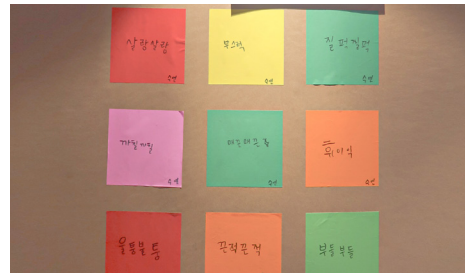


양수연

환경을 생각해요

가변설치 / 흙바닥, 나뭇잎, 나뭇가지

그릇에 가득 남긴 시리얼, 숲길 보존을 위해 음식쓰레기를 남겨서 안 됨을 표현함



양수연

색종이에 쓴 9개의 느낌

15×15cm 9pcs / 색종이, 크레파스

자신이 숲길에서 느꼈던 걸음의 느낌을 단어로 표현함



이준

숲속 나의 집

가변설치 / 흙바닥, 나뭇잎, 나뭇가지

자신이 걸었던 숲길에 자신이 살고 싶은 따뜻한 집을 만들



이준

색종이에 쓴 9개의 느낌

15×15cm 9pcs / 색종이, 크레파스

자신이 숲길을 걸으면서 보고 느꼈던 느낌을 단어로 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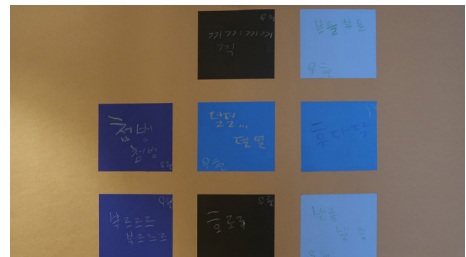


정우현

덤덤이의 집

가변설치 / 흙바닥, 나뭇잎, 나뭇가지, 돌

자신이 걸었던 숲길에 덤덤이가 살기 좋을 것 같은 따뜻한 집을 그림



정우현

색종이에 쓴 8개의 느낌

15×15cm 8pcs / 색종이, 크레파스

자신이 숲길을 걸으면서 보고 느꼈던 느낌을 단어로 표현함

1월 17일 수요일

첨단 아미들레길 숲 탐색활동

걷고 있던 숲길에서 느꼈던 촉각을 중심으로 감각하고 연구대상과 연결하여 예술로 표현하기 (만져보고 느꼈던 느낌, 걸음의 변화에서 느꼈던 느낌을 중심으로 트레이싱페이퍼에 표현하기)



김가람

기쁨

45×30cm

트레이싱지, 나뭇잎, 나뭇가지, 콩깍지

크림이가 느끼는 촉각은 어떻게 상상하며 걸었고 이것저것 만져보며 찾아보니 크림이는 기분 좋은 느낌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기분 좋은 느낌을 떠올리니 웃는 표정이 생각나 웃는 표정을 표현하게 됨



김나연

나뭇잎 마을

45×30cm

트레이싱지, 오일파스텔, 나뭇잎, 나뭇가지, 조개껍질, 콩깍지, 돌

나무에 붙어사는 나뭇잎이 다른 나뭇잎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음. 나뭇잎 주변에 있는 여러 친구들도 어울리며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표현함



양수연

새싹이의 기쁨

45×30cm

트레싱지, 오일파스텔, 나뭇잎, 나뭇가지, 조개껍질, 나무열매, 돌, 이끼

숲길을 걸으면서 발견한 새싹이가 주변 나뭇잎, 도토리, 이끼 등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함



이 준

자연

45×30cm

트레싱지, 오일파스텔, 색연필, 싸인펜, 나뭇잎

숲길을 걸으면서 거미에게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거미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표현하게 됨



정우현

도토리 벌레 숲

45×30cm

트레싱지, 오일파스텔, 나뭇잎 도토리, 조개껍질

걸으면서 덩덤이의 촉각을 상상해보니 벌레 숲에 사는 덩덤이가 떠올랐고 덩덤이가 살면 좋을 것 같은 도토리벌레 숲을 그림

1월 18일 목요일

자함길 (첨단 아미톨레길 건너편에 위치,
A어린이가 자랑하고 싶은 '자연이 함께하다' 길) **탐색**

어린이연구원이 소개하고 싶은 길에서 다양한 걸음
으로 걷고 그 중 자신의 연구대상과 가장 비슷한 걸
음을 찾아 표현하기(걸음걸이로 표현하기)



이 준

폭 족
53×45cm

캔버스, 아크릴물감, 오일파스텔

숲길을 걸었던 발자국을 발 대신 손을 이용
하여 걸었던 발자국 방향을 표현함, 화려한
폭죽이 터지 듯 즐거운 발걸음을 표현함



이 준

손가락 포토존
53×45cm

캔버스, 아크릴물감, 오일파스텔

숲길을 걸으며 자세히 들여다보았던 행복
한 마음을 자연물과 함께 자세하게 남기고
싶어서 포토존을 표현함



김가람, 김나연, 양수연

솔방울 나라

106×90cm

캔버스, 아크릴물감, 나뭇잎, 나뭇가지, 솔방울, 나무열매

함께 걸었던 숲길에는 솔방울, 도토리, 풀들이 많았고 함께 걸을 때 꿈동산에 온 것처럼 신나고 들뜬 느낌이 들었음. 서로가 발견한 것을 나누고 함께한 즐거운 시간을 축제가 열리는 솔방울 나라로 표현함



정우현

자연과 함께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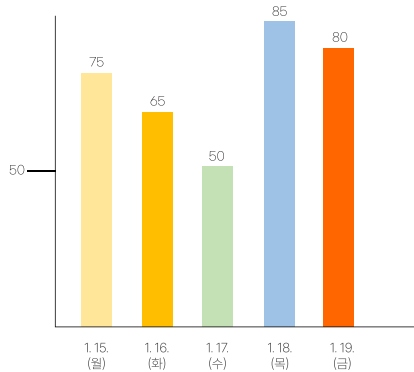
106×45cm

캔버스, 아크릴물감, 나뭇잎, 나뭇가지, 솔방울, 도토리, 나무열매, 매미껍질

친구들과 걷고 탐색했던 길이 즐겁고 행복했던 것은 모두 자연이 주는 편안함이라는 고마움을 표현함

6-4. 어린이 연구원 그룹 변화 관찰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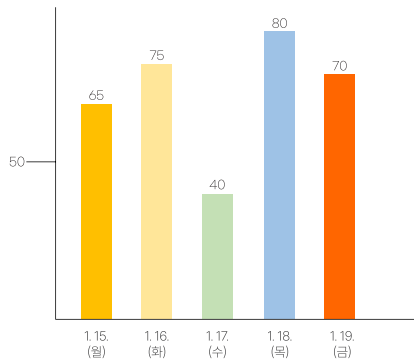
(1) 다이어그램



김가람

감정의 변화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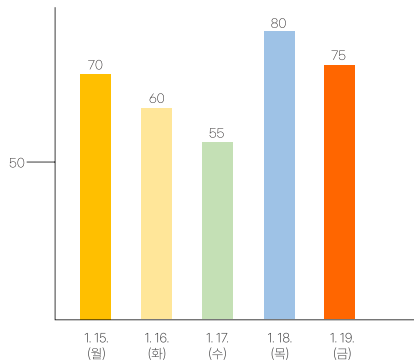
김가람 어린이 연구원은 선생님과 소통 분량과 감정 에너지가 비례했다. 전체적으로 업 되어있으면서도 감정 기록이 관찰되었다.



김가람

움직임의 변화 (걷기 속도)

김가람 어린이 연구원의 걷기 속도는 대체로 빨랐으며 기록 없이 걸음의 속도가 유지되었다.



김가람

움직임의 변화 (에너지)

김가람 어린이 연구원은 대체로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갈수록 더욱 활발한 움직임의 에너지를 보였다.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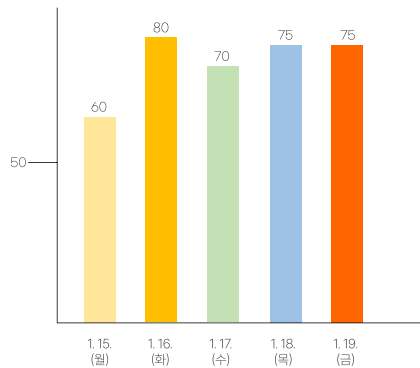
조용한 모습에서 함께 걷고 난 후 감정을 좀 더 표현하고 수용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신체

광장히 닫혀있는 신체의 모습에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진 듯 긴장도가 낮아지고 즐거운 모습이 갈수록 나타났다.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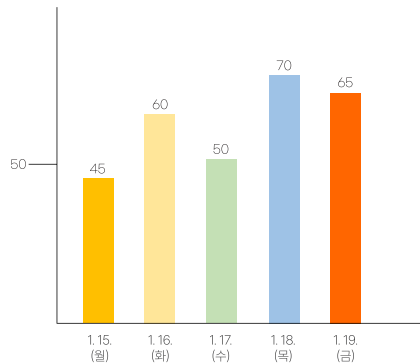
선생님과의 소통에서 또래와의 소통으로 변화하면서 관계성이 친밀해짐이 관찰되었다.



김나연

감정의 변화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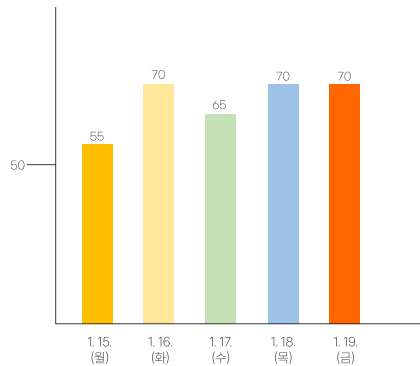
김나연 어린이 연구원은 늘 즐거운 감정을 유지했고 기복 없이 높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이어갔다.



김나연

움직임의 변화 (걷기 속도)

김나연 어린이 연구원은 차분하게 주변 사람의 보폭을 맞추어 걸었다. 그러다 전체적으로 속도가 맞춰지면 차츰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김나연

움직임의 변화 (에너지)

김나연 어린이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활기찬 에너지로 움직이며 호기심이 가득한 적극적인 에너지가 유지되었다.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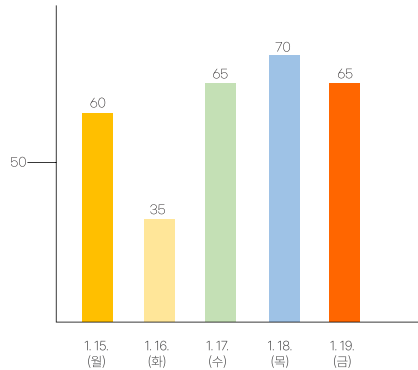
자기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무엇이든 잘 수 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체

신체 에너지가 대체로 높고 그 상태가 유지되면서 친구들의 신체 에너지도 향상시켜주는 상태로 변화하였다.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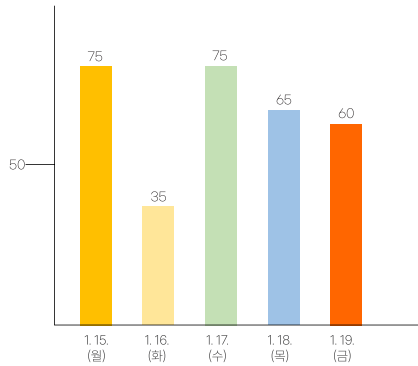
걷기를 하면서 그룹원들과 자연스럽게 친밀해지고 떨어져 있는 친구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그룹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관계성을 보였다.



양수연

감정의 변화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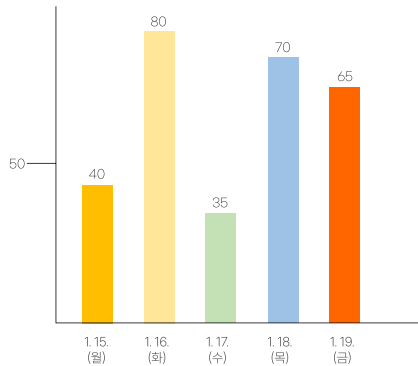
양수연 어린이 연구원의 감정 에너지는 중간중간 다운된 적 있었으나 대체로 편안함이 유지되었다.



양수연

움직임의 변화 (걷기 속도)

양수연 어린이연구원의 걷기 속도는 큰 기복 없는 보통의 걸음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양수연

움직임의 변화 (에너지)

양수연 어린이 연구원의 움직임 에너지는 크거나 작지도 않은 보통의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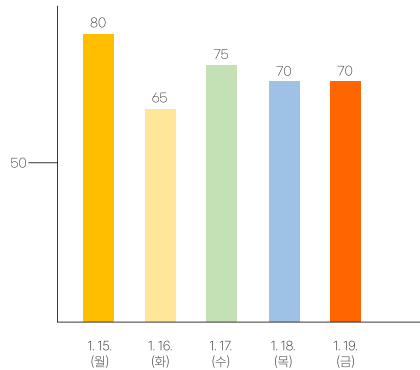
조용한 감정 상태에서 걷기 후 즐거운 상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짧은 시간임에도 정을 주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신체

살짝 낮은 에너지의 몸 상태에서 걷기 후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느낀 후 높아진 에너지로 변화하였다.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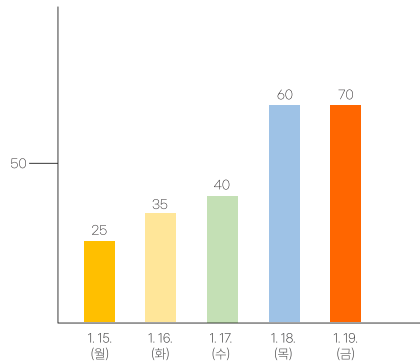
활동이 진행될수록 점차 친밀감을 느끼고 함께하는 분위기를 통해 또래 중심으로 관계성이 변화하였다.



이준

감정의 변화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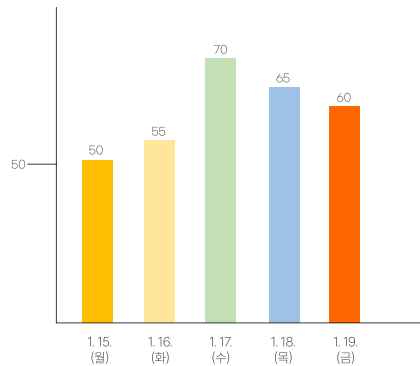
이준 어린이 연구원의 감정은 전체적으로 업 되어 보였고 항상 즐거운 에너지를 유지하였다.



이준

움직임의 변화 (걷기 속도)

이준 어린이 연구원은 호기심이 많아 이것저것 보느라 매우 느리게 걷다가 점차 친구들과 비슷한 속도로 걷기 시작했다.



이준

움직임의 변화 (에너지)

이준 어린이 연구원은 움직임의 에너지가 대체로 평균적이었다가 높아졌다.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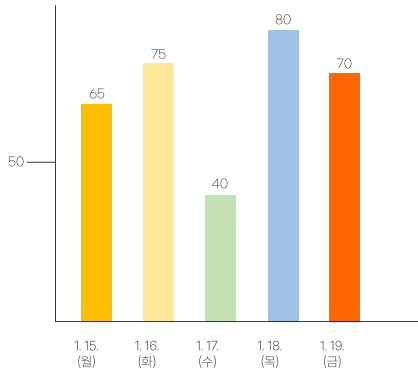
호기심이 많아 관심 대상을 찾아 혼자 집중하는 모습에서 함께 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 후 점차 서로 교류하며 감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신체

자신감 있고 밝지만 안으로만 맴도는 신체 에너지에서 밖으로 나와지는 에너지로 변화하였다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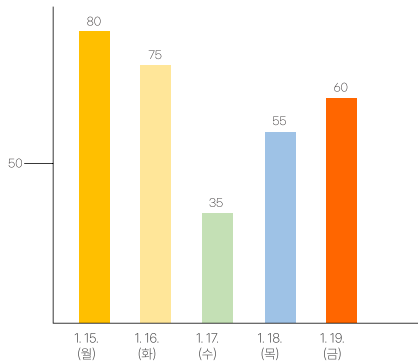
관계성이 좋지만 혼자 하려는 자기 몰입적 기질이 보였다. 걷기 후 경험을 공유하고 표현하면서 차츰 함께 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정우현

감정의 변화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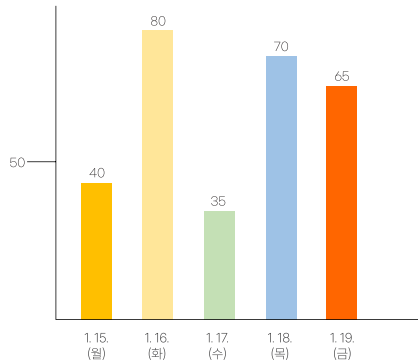
정우현 어린이 연구원의 감정 에너지는 종종 다운되기도 했지만 가라앉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스스로 잘 조절하였다.



정우현

움직임의 변화 (걷기 속도)

정우현 어린이 연구원은 매우 빠른 속도로 걷다가 점차 주변 사람들과 비슷한 속도에 맞춰 걷기 시작했다.



정우현

움직임의 변화 (에너지)

정우현 어린이 연구원의 움직임 에너지는 기복이 있었다가 차츰 가벼운 상태가 되었다.

감정

감정을 조절할 때 호흡을 사용하였고 얼굴 표정이 점차 밝아지며 친구들과의 대화가 활발해졌다.

신체

몸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웠는데 걷기를 통해 신체가 유연해지고 움직임이 많아졌으며 큰 움직임에서 작은 움직임까지 가능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관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서로 조율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등 상호 작용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2) 어린이 연구원 소감 및 인터뷰

김가람

1. 소감	재밌었다. 길을 걷는 것이 재밌었다.	재밌었다. 걷는 것이 재밌었다.
2. 기억에 남는 장소는?	임방울대로 공원길	임방울대로 공원길
3. 좋았던 점은?	같이 다니는 것이 좋았다.	채집하는 것이 재밌었고 자연물 만지는게 좋았다.
4. 친구에게 추천 하겠는가?	산책하고 재밌으니 추천함	걷기도 하고 미술활동도 하니까 추천함
5. 힘들었던 점은?	비올 때 질퍽한 길 걸을 때 신발 때문에	힘든 점 없었음
6. 연구원 선생님과 함께 한 소감	아주 재밌고 고마웠음	기뻐다. 같이 걸으며 이야기 나누어 좋았음
7. 걷기활동 전후 달라진 점	원래 집밖에 안나갔는데 이제 많이 나가고 싶어졌다.	좀 더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김나연

양수연

1. 소감	너무 재밌고 새로운 것 봐서 신기하고 좋았다.	너무 재밌었다. 재밌었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
2. 기억에 남는 장소는?	첨단아미돌레길 6코스	첨단아미돌레길 6코스
3. 좋았던 점은?	서로 도와주고 협동하고 배려하는 것이 좋았다.	같이 걸어서 재밌었다.
4. 친구에게 추천 하겠는가?	재밌게 사람들도 알고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 추천함	그림 그리고 걸어다니는 것이 재밌으니 추천함
5. 힘들었던 점은?	서로 싸울 때 말리는 것이 힘들었음	힘든 점 없었음
6. 연구원 선생님과 함께 한 소감	너무 즐겁고 행복했음 고마웠음	걸어다니는 것이 좋았음
7. 걷기활동 전후 달라진 점	친구들과 친해지고 선생님이 친절해서 기분이 좋아졌다.	걷는 것이 재밌어지고 친구들과 친해짐

이 준

정우현

1. 소감	재밌고 즐거웠다.
2. 기억에 남는 장소는?	임방울대로 공원길
3. 좋았던 점은?	다 같이 걸었던 것이 좋았다.
4. 친구에게 추천 하겠는가?	재밌고 신나는 활동이라 추천함
5. 힘들었던 점은?	오르막길 오를 때 다리가 아픔
6. 연구원 선생님과 함께 한 소감	재밌고 즐겁고 신나서 좋았음
7. 걷기활동 전후 달라진 점	친구들과 함께해서 좋았음

(3) Shape qualities의 틀로 바라본 어린이 연구원들의 걸음

< 설명 >

1. Shape qualities로 분석한 목적

| Shape qualities는 몸이 환경과 관계를 맺는 양식으로써 신체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평가하는 도구이다.
공간과 타인이 함께 있을 때 몸의 형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고자 Shape qualities를 평가도구로 사용하였다.

2. Shape qualities를 통해 보고자 했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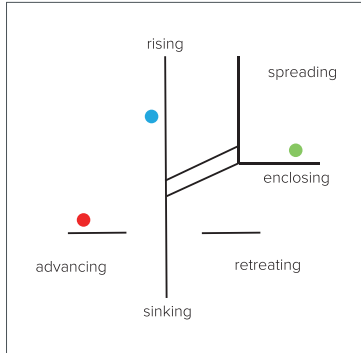
| 관계로서의 Shape qualities: 또래로 구성된 그룹으로서, 걸으면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몸의 형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고자 하였다.
| 감각으로서의 Shape qualities: 걷기는 자연스럽게 감각기관을 활성화시킨다. 걸으면서 느껴지는 감각을 어떻게 몸의 형태로 표현되는지 보고자 하였다.
| 감정으로서의 Shape qualities: 그룹원들의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행동과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룹 안에서 감정적 자극을 일으키는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그룹원의 안전한 상호연결을 위한 노력과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행동과 움직임이 몸의 형태로 그대로 드러났다.

3. Shape qualities를 통해 발견한 점

| 관계로서의 Shape qualities: 걷기 그 자체보다는 대화를 하면서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컸고 이는 그대로 몸의 형태로 드러났다.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수용 받는 경험을 원하는 형태일 땐 몸이 열리고 그러지 않을 땐 움츠리고 느껴지는 몸의 형태를 보였다.
| 감각으로서의 Shape qualities: 다양한 경험을 했던 어린이 연구원들은 자연스럽게 감각을 확장하여 느껴보는 몸의 형태를 드러냈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 연구원들은 점차 예열하듯이 감각을 열어나갔다. 다양하게 걷고 감각을 열어 경험해 보는 것에서 환경에 대한 개방성으로 몸의 형태가 표현되었다.
| 감정으로서의 Shape qualities: 그룹원들의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행동과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룹 안에서 감정적 자극을 일으키는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그룹원의 안전한 상호연결을 위한 노력과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행동과 움직임이 몸의 형태로 그대로 드러났다.

4. Shape qualities를 통해 분석한 변화된 지점

| 관계로서의 Shape qualities: 처음엔 또래가 아닌 성인과 주로 관계를 맺으려 했으며 친해지고자 하는 밀착적인 몸의 형태가 드러났다. 그러다 점차 성인에게서 또래에게로 관계성이 이동하면서 또래에게 몸이 열리기 시작했고 서로의 보폭을 맞추며 대화하는 형태로 달라졌고 몸의 개방성과 에너지가 비슷해져 서로의 친밀감이 느껴지는 보폭으로 걷기 시작했다.
| 감각으로서의 Shape qualities: 감각에 대한 몸의 개방성이 확장되었다. 걸으면서 느끼게 된 감각들이 어떤 감각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몸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지는 형태로 바뀌어졌으며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몸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 감정으로서의 Shape qualities: 가장 크게 변화된 지점은 감정적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부분이다. 처음부터 선생님들을 포함한 어린이 연구원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감정적 자극들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과 표현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호작용의 유지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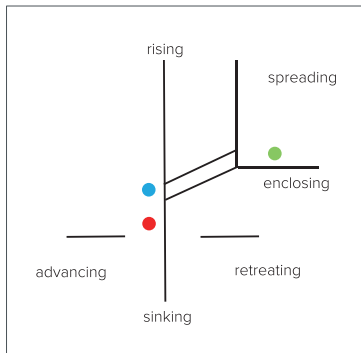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5일
첨단 아미돌레길 생태공원 탐색활동

가람이의 몸 형태 분석

전체적으로 빠른 advancing(전진)의 걸음으로 걸으며 몸의 에너지는 다소 rising(가볍다)하였다. 박유정선생님에게 도마뱀에 관한 정보를 전할 때에는 더욱 에너지가 상승하였다. 처음에는 몸의 형태가 encosing(닫혀있다)하다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지만 아직 대체로 닫힌 형태의 모습이었다. 이는 추위 때문일 수 있다.

김가람 관찰자 분석

활동 시작 전 가람이는 감정 표현이 많지 않고 과묵하였으나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적극성을 보이며 열심히 참여하였다. 자연 속 식물이나 동물을 좋아하며 본인 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좋아하며 자기 정보를 선생님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보다 선생님과의 대화에 적극성을 띄는 모습에서 소통 욕구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람이는 애완동물 도마뱀 크림이와의 이별을 연상하며 “아쉬움”이라는 감정을 주체 삼고 자연을 관찰하며 작품을 표현했다. 가람이가 떠올리는 형용사를 보면 풍부한 감수성이 느껴지는데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가람이는 오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매사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며 잘 어울리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6일
첨단 아미돌레길 숲 탐색활동

가람이의 몸 형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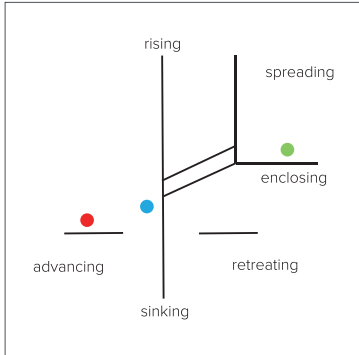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retreating(후진)의 걸음으로 걸으며 몸의 에너지는 sinking(가라앉다)했다. 가람이는 선생님과 함께 오래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룹 활동인 상황으로 인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아쉬움이 큰 듯 보였다. 생각보다 걷는 시간이 부족해서였는지 에너지가 다소 낮아보였으나 그림 활동에서 다시 에너지가 상승했다. 몸은 대체로 encosing(닫혀있다) 했으나 어제보다 열려있는 느낌이었고 덜 움츠러들었다.

김가람 관찰자 분석

어제부터 “내일이 기다려진다.”던 가람이는 아침에 늦지 않기 위해 마구 뛰어 들어왔다. 걷기활동에 대한 기대를 안고 급히 뛰어왔을 가람이의 마음이 따뜻하게 와 닿았다. 가람이는 오늘도 선생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는지 걸으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였지만 좋아하는 걸기를 많이 못해서인지 점점 조용해졌다. 가람이는 첫날 연구 주제를 아쉬움으로 잡았는데, 많이 걷지 못하고 선생님과 대화도 충분히 않아서인지 어제보다 에너지가 낮아 보였다. 가람이의 감정 추이를 미뤄볼 때 소통과 가람이의 만족감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흙바닥에 표현하기 활동에서 가람이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캐릭터를 확고하게 찾아내며 재미있게 잘 표현하였다. 가람이는 단어나 글씨 표현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익숙해 하며 더 즐거워하는 것이 뚜렷하다.

<개인 Shape 분석>

김가람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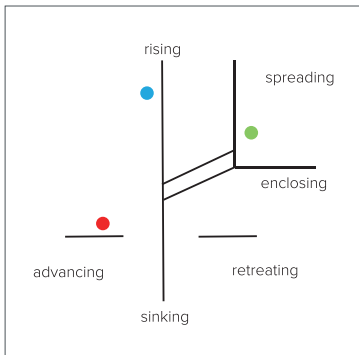
첨단 아미돌레길 우거진 숲 탐색활동

가람이의 몸 형태 분석

다소 빠르게 advancing(전진)의 걸음으로 걸으며 몸의 에너지는 다소 sinking(가라앉다)했다. 친구와 보폭을 맞춰 걸으라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같이 걷길 원하는 가람이를 옆에 있던 친구들이 거부했음에도 의외로 기분이 상해 보이지 않았다. 오늘 먼저 가야 하는 일정이 있어서 그런지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선 매우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몸의 형태는 여전히 enclosing(담혀있다)했으니 준이와 함께 걸을 때에는 열린 형태를 보였다.

김가람 관찰자 분석

오늘 가람이는 평소 자신이 걷고 싶었던 길이 오늘의 활동 코스라는 것을 알고부터 내내 기분이 좋았다. 좋은 기분에 따라 적극적으로 앞서 걸으면서도 첫날보다 훨씬 조용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주변을 관찰하며 탐색해 나갔다. 가람이는 주어진 미션을 빠르게 수행하는 편인데 자신의 미션을 마무리하면 더 이상 관심 두지 않고 다른 호기심 대상을 찾아 나선다. 특히 아이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력과 공유 활동보다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며 걷는 것을 더 좋아한다. 선생님을 독점하고 싶지만 그룹 활동 상황을 이해하고 친구들에게 양보하며 너그럽게 수용하는 대견한 모습을 보인다. 가람이는 활동 내내 표정이 밝고 즐거워하며 함께하는 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양보하는 등 형, 오빠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가람이는 오늘 걷기 활동 중 준이와 함께 할아버지 걸음을 흉내 내면서 걸을 때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동생들을 이끌어줌으로써 자신의 의정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8일

자함길("자연이 함께 한다", 첨단 아미돌레길 건너편에 위치)탐색

가람이의 몸 형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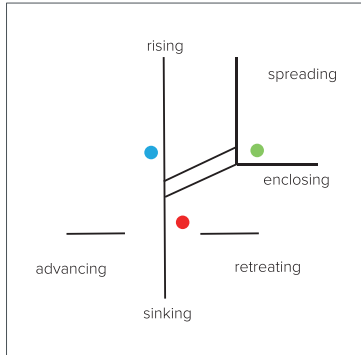
박유정선생님과 단둘이 걸어서인지 신나 보이는 advancing(전진)의 걸음으로 걸었다. 몸의 에너지도 기분이 그대로 반영된 듯 rising(가볍다)했고 그 어느 날보다 에너지가 매우 가볍고 상승해 보였다.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다양한 걸음으로 걸을 땀 낫설어 하기도 했으나 곧 열심히 시도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몸의 형태도 처음으로 spreading(펼쳐있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을 내보이는 느낌이 들고 시종일관 교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가람 관찰자 분석

오늘 가람이는 선생님의 옆자리에 계속 있어서인지 얼굴이 유독 밝았다. 선생님과 많이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어서 더욱 신이 난 모습으로 자함길 탐색에 나섰다. 가람이는 숲길에서 채집할 때 자연을 보다는 인공물에 관심을 더 드러낸다. 자연 속에 놓여 있는 어떤 인공물을 찾아 낼 때면 가람이는 큰 반응을 보이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연이어서 생각해 내고 채집물의 용도는 예술 표현활동 때 넘치는 에너지로 연결되어졌다. 평소 표현이 어색하였던 모습은 사라지고 적극적으로 붓을 들고 과감하게 터치하는 모습과 예술표현에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자기표현에 능숙한 가람이로 변화하였다. 다양한 걸음 걷기에서 가람이는 느리게 걷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걷느냐고 질문하면서 어색해 했지만 열심히 따라하면서 걸음에 따라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 Shape 분석>

김나연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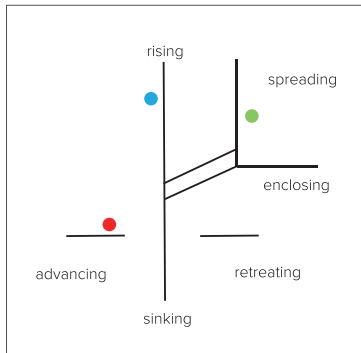
첨단 아미돌레길 생태공원 탐색활동

나연이의 몸 형태 분석

차분한 걸음으로 다소 retreating(후진)한걸음으로 걸었다. 자기만의 차분함으로 연구주제를 탐색했고 꼼꼼하게 보는 모습이었으며 그룹과 함께 하려는 느낌으로 걸었다. 몸의 에너지는 rising(가볍다)한편이나 적당하고 자연스러웠다. 몸은 자연스럽게 spreading(열려있다)되어 있었다.

김나연 관찰자 분석

처음 나연이는 활발한 움직임 보다는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나연이는 주변을 잘 탐색하면서 친구의 보폭과 행동의 범주에 맞춰 움직이려고 하는 배려심이 돋보였다. 필요시에는 선생님에게 살짝 다가와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 상황을 알려주는 등 적극성과 자기표현에 관한 명확성이 관찰되었다. 주위 친구들에게 잘 맞추며 자연스럽게 주변에 잘 스며드는 아이로 보여 진다. 작품을 그릴 때 나연이는 자신이 관찰하였던 대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선생님의 지도에 잘 따라 오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고루 잘 표현하는 측면을 볼 때 내면의 단단함을 지닌 아이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6일

첨단 아미돌레길 숲 탐색활동

나연이의 몸 형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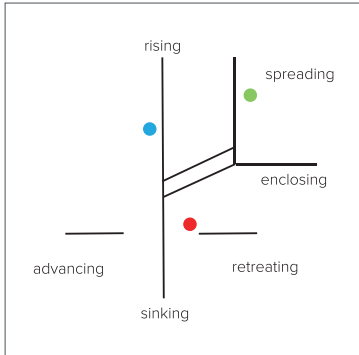
오늘은 좀 더 활기차으며 advancing(전진)한걸음으로 걸었다. 몸의 에너지는 많이 rising(가볍다)한편이었고 활발했다. 생태공원을 돌아다니며 즐겁게 탐색하고 집중하고 온 몸으로 감각을 느끼며 임하는 모습이었다. 몸은 좀 더 spreading(열려있다)되어 있었고 어제보다 높은 에너지로 탐색하며 즐거운 기운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김나연 관찰자 분석

활동 둘째 날 나연이는 어제보다 더욱 활발하고 아무지게 자신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어휘와 문장력 표현을 풍부하게 하였다. 어제는 프로그램과 친구들의 분위기 탐색하느라 조심스럽고 조용하였다면 오늘은 자신의 기질을 표출하며 적극적인 모습으로 활동하였다. 예술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고 능숙한 듯 보이는 데 이는 아이의 감각이 타고났거나 감각 표현 경험을 많이 접하여 능력이 길러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나연이는 어떤 여건과 환경에도 잘 스며들어서 눈에 띄는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질의 아이들은 선생님의 요구대로 잘 따라주고 주변에 잘 맞추어 움직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관찰에서 소외될 수 있음을 의식하고 좀 더 세심하게 잘 챙겨함을 기억해야 한다.

<개인 Shape 분석>

김나연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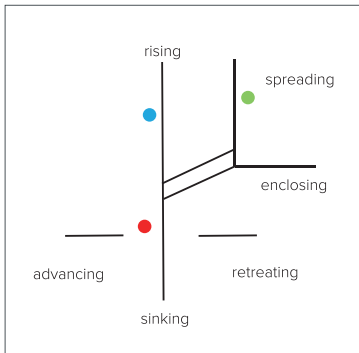
첨단 아미돌레길 우거진 숲 탐색활동

나연이의 몸 형태 분석

준이와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느낌으로 retreating(후진)했다. 옆 사람과 보폭 맞춰 걷기활동에서 나연이는 어색해 하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바로 융하며 준이와 소통하며 즐겁게 걸었다. 몸의 에너지는 rising(가볍다)했고 느낌을 공유하며 역시 옆 사람을 챙기는 모습이었다. 자연물을 만지며 느껴지는 촉각을 적극적으로 감각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고 몸의 형태는 대체로 spreading(열려 있다)되어 있었는데 촉각적인 경험이 더해져서 인지 다른 날보다 많이 열린 형태를 보였다.

김나연 관찰자 분석

나연이는 매우 활발하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바로 바로 잘 표현한다. 특히 또래와 관계에서 박력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관찰된다. 남자아이들의 행동도 스스럼없이 교정해 주거나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꼭 집어서 그 상황을 정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야외 걷기활동이나 예술표현 활동에서 나연이는 다양한 경험과 학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노하우가 발휘한다. 아이에게 축적되어 있는 느낌을 표현하고 주도해 나갈 때면 거침없이 도전하며 능숙하게 수행하기도 한다. 상황 판단이 빨라 어느 여건에서든 주변을 잘 살피므로써 어른들에게 모범생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되는 아이이다. 나연이는 정적인 활동도 무난하게 잘 하지만 특히 표현력 채집을 하거나 만져보는 것 등의 동적인 활동을 즐기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이다.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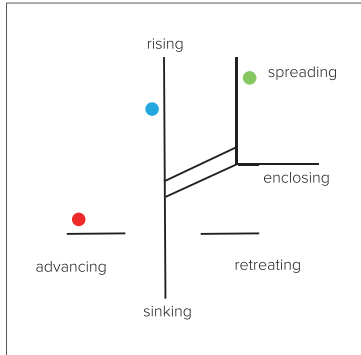
자함길("자연이 함께 한다", 첨단 아미돌레길 건너편에 위치)탐색

나연이의 몸 형태 분석

오늘은 좀 더 에너지가 높은 듯 다른 날보다 advancing(전진)한 걸음으로 걸었다. 다른 사람들의 보폭을 맞추며 소통하며 걸었고 몸의 에너지는 이전보다 상쾌하게 rising(가볍다)했으나 남자 아이들의 장난엔 예민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양한 걸음을 걸을 때도 정확하면서도 자유롭게 잘 걸었다. 몸의 형태는 spreading(열려 있다)되어 있었고 즐거워하는 기운으로 전달되었다.

김나연 관찰자 분석

나연이는 오늘도 평소처럼 모든 프로그램을 잘 따르며 선생님의 유도대로 미션을 잘 수행한다. 또래에 비해 생각하는 것이 어른스럽고 시야가 넓어 친구들의 행동이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잘 조율해 나간다. 나연이의 뛰어난 관찰력과 빠른 판단능력은 걷기 예술 활동에서 잘 드러난다. 새로운 것에 대한 탐색은 주저하지 않는 나연이는 넓은 시야를 지닌 반면 충분히 상황을 주지한 다음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에서 개방성이 넓지 않음은 짐작할 수 있다. 나연이는 공동 예술표현활동에서 자유롭고도 과감한 물감 사용과 붓질을 하면서 친구들의 작업방향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 면모를 보여주었다.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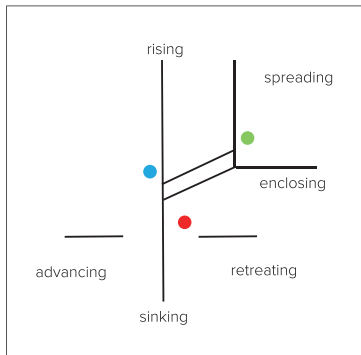
첨단 아미돌레길 생태공원 탐색활동

수연이의 몸 형태 분석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이며 다소 빠른 advancing(전진)의 걸음으로 걸었다. 몸의 에너지는 rising(가볍다)하였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관찰하느라 가벼우면서도 차분한 에너지가 유지되었다. 몸은spreading(열려있다)한 편이나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열려있는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다. 전체적으로 자신을 지키면서도 적당한 몸의 형태로 걷고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수연 관찰자 분석

수연이는 “걷기활동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에 긴장하면서도 시작하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설레는 모습이었다. 수연이는 어떤 일에 있어 바로 대답하기보다는 생각을 정리하여 말하는 신중한 성격으로 보이며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고 솔직하게 표현한다. 첫날 수연이는 탐구활동에 필요한 준비물가방을 꼼꼼히 챙겨왔는데 추운 기온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걷는 모습에서 열정적 태도가 돋보였다. 걷기를 시작하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걸으니 여태 잘 모르고 걸었던 자연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들이 보인다고 신기해하며 좋아했다. 특히 나무의 수형이나 나무의 높이를 처음 관찰하는 듯 꼼꼼히 만져보고, 올라다보는 등 열심히 걸으면서 본 본인의 느낌을 자세히 공유하였다. 내일 시간은 더 오래도록 많이 걷고 싶다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6일

첨단 아미돌레길 숲 탐색활동

수연이의 몸 형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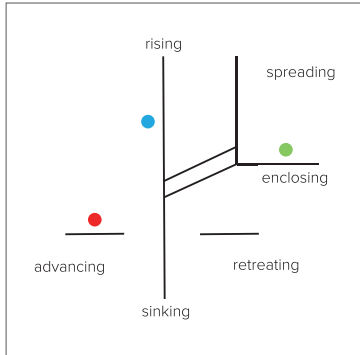
어제보다 걸음이 retreating(후진)했으며 몸의 에너지도 sinking(가라앉다)했다. 수연이는 자신의 호기심 대상을 선생님에게 알려주고 함께 나누길 좋아했으며 주어진 활동 주제를 무척 잘 파악하여 묵묵하게 과제를 잘 수행했고 집중했다. 몸은 어제보다 enclosing(닫혀있다)했으나 아주 닫혀있진 않았다.

양수연 관찰자 분석

수연이는 주어진 임무를 매우 잘 수행하며 선생님의 유도대로 침착하게 잘 따라준다. 많은 말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내면이 단단하고 생각이 깊은 면모를 보이며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오늘 느낀 감각을 그림으로 표현에서는 화려하지 않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굳게 표현해 냈으며, 단어로 표현하기에서는 다양한 형용사를 순조롭게 사용하였다. 수연이는 감각을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 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결코 거부하지 않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따른다. 책임감과 준비성이 좋은 태도를 갖춘 수연이는 앞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준다면 더욱 풍부한 정서와 표현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개인 Shape 분석>

양수연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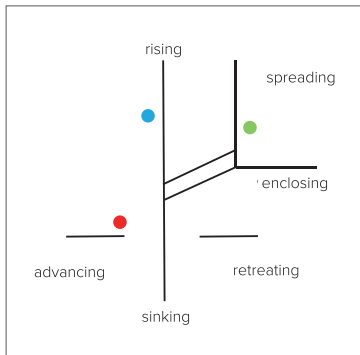
첨단 아미돌레길 우거진 숲 탐색활동

수연이의 몸 형태 분석

오늘은 조민영선생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걸어서인지 상쾌하게 advancing (전진)하게 걸었다. 몸의 에너지도 다시금 rising(가볍다)했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보였다. 조민영선생님과 의 시간에서 얻은 충족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긍정적 효과에너지로 발현되었다. 몸은 어제보다는 spreading(열려있다)했는데 이는 선생님을 향한 마음의 에너지로 보였다.

양수연 관찰자 분석

수연이는 새로운 환경과 변화된 루틴보다는 자신이 잘 알고 익숙한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강한 안정 추구 특성을 보인다. 수연이는 활동 초기 때부터 탐구에 필요한 준비물 준비가 철저했으며 자신의 소지품에 관하여 정리정돈을 잘 하고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 이러한 기질은 그림으로 표현할 때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자신이 계획한 바가 확실히 서야만 표현 활동을 시작한다. 수연이는 선생님과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을 특히 좋아하는데, 조용한 성품이지만 잘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며 열정이 가득한 내면의 소유자인 것으로 관찰된다.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8일

자함길("자연이 함께 한다", 첨단 아미돌레길 건너편에 위치)탐색

수연이의 몸 형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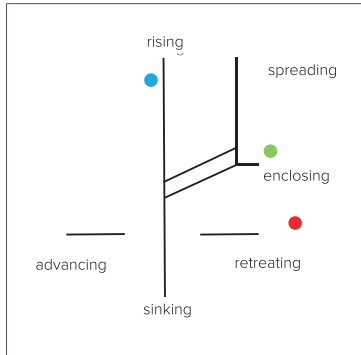
어제는 비가 와서 걷기를 주저했지만 오늘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advancing(전진)의 느낌으로 걸었다. 몸의 에너지도 rising(가볍다)했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걸었다. 조민영선생님을 중간 중간 찾는 모습이 보이면서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다양한 걸음 중 느릿하고 무거운 걸음을 걷는 것이 자신의 에너지와 잘 맞은 듯 즐거워 보였다. 몸도 기분 좋게 spreading(열려있다)했으며 오늘 가장 신나고 밝은 에너지를 드러냈다.

양수연 관찰자 분석

오늘 수연이는 우현이가 제시하는 길을 잘 따르면서도 한편에는 자신도 우현이처럼 리드하며 소개하고 싶다는 것을 어필하였다. 수연이는 평소 조용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오늘 수연이의 얼굴은 밝고 기분이 좋아 보였으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에너지가 낮아 보였다. 수연이는 워낙 조심성이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무릎이 모이는 걸음자세라 발걸음이 신중하고 다소 무거운 편이다. 오늘 자함길을 걸을 때 무거운 걸음으로 시작했지만 롱패딩을 벗고 난 후 수연이의 걸음과 에너지가 가벼워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걸음걸이 변화활동에서 수연이는 다른 사람의 걷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느리게, 무겁게, 가볍게, 빠르게, 낮게, 높게 걸으며 걸음 움직임과 시선을 맞추며 열심히 잘 수행하였다. 수연이는 어떤 목표가 주어졌을 때 조심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수행하려 노력한다.

<개인 Shape 분석>

이 준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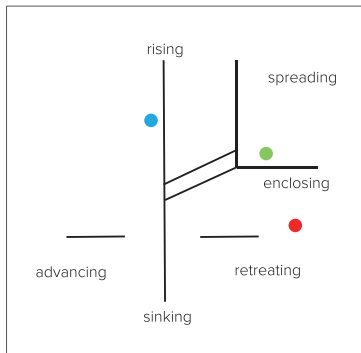
첨단 아미돌레길 생태공원 탐색활동

준이의 몸 형태 분석

자기몰입적인 형태로 거의 retreating(후진)한걸음으로 걸었다. 관심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많이 머물러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집단과 거리가 있는 채로 걷는 모습이었다. 타인과의 교류보다는 자기가 지금 집중되어진 것에 관심을 쏟으며 그로 인해 다른 것은 잘 못 보는 모습이었다. 몸의 에너지는 아주 rising(가볍다)한편이었고 지금 느껴지는 즐거움이 그대로 몸의 에너지로 드러났다. 몸은 적당하게 spreading(열려있다) 되어 있으나 다소 닫힌 형태로 보였으나 방어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준 관찰자 분석

준이는 활동 내내 숲에 있는 대상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친구들과 보폭 맞추는 것보다 자신의 관심대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찾아낸 것을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였다. 준이는 자신이 찾아 낸 나뭇가지, 곤충 등을 깊이 관찰하며 친구들과 각자 찾은 것을 비교하는 열심히 탐구하였다. 준이는 내일 걷기 활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된다면서 “빨리 내일이 오면 좋겠다.”를 여러 번 말하였다. 준이의 밝은 에너지와 적극적인 탐구 모습은 함께하는 친구들의 호기심 욕구를 깨워주는 역할이 되고 있다.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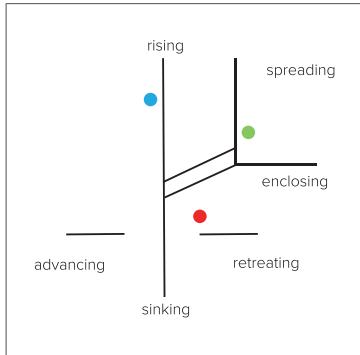
첨단 아미돌레길 숲 탐색활동

준이의 몸 형태 분석

어제와 비슷하게 retreating(후진)한걸음으로 걸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머무르며 같은 흐름을 타지 않고 자기만의 감각으로 움직였다. 몸의 에너지는 대체로 rising(가볍다)한편이었고 자신이 만들어내는 창작물에 만족해하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몸은 어제보다 spreading(열려있다) 되어 있었고 오감을 잘 이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준 관찰자 분석

준이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여전히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자기 몰입적으로 열심히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변 친구들 모습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관심대상에 몰입하면서 혼자만의 페이스로 깊게 사고하며 표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탐색 과정 중 자신이 발견하거나 궁금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곧잘 표현하며 친구들과 공유하고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소통을 잘 하였다. 준이는 산만하지 않고 침착하게 미션수행과 실행을 똑똑하게 잘하며 특히 그림 표현에 있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풍성하게 표현할 줄 알며 단어 표현 역시 매우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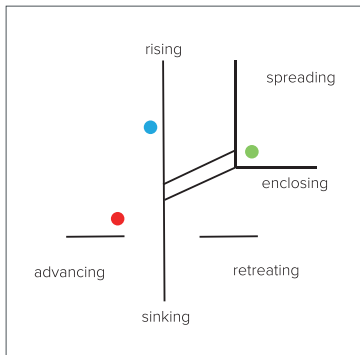
첨단 아미돌레길 우거진 숲 탐색활동

준이의 몸 형태 분석

오늘도 retreating(후진)한걸음으로 걸었는데 나연이와 소통하며 주변을 관찰 하느라 자연스러운 후진 형태로 걷는 것 같았다. 몸의 에너지는 많이 rising(가볍다)했는데 신이 나서그런지 자발적으로 지팡이를 만들어 할아버지 걸음을 흉내 내는 등 공간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몸은 적당히 spreading(펼쳐있다)되어 있었고 오늘은 다른 날보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이준 관찰자 분석

준이는 주변이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없이 잘 표현한다. 장난끼가 많은 편이지만 결코 무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지녀 어느 친구와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잘 지낸다. 특히 우현이를 잘 챙기며 우현이나 다른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귀담아 들어주면서 많이 수용하여 준다. 생각 표현하기 활동에서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준이의 예술적 감수성이 빛을 발하였고 색상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색상감각이 밝고 명랑하다.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8일

자함길("자연이 함께 한다", 첨단 아미돌레길 건너편에 위치)탐색

준이의 몸형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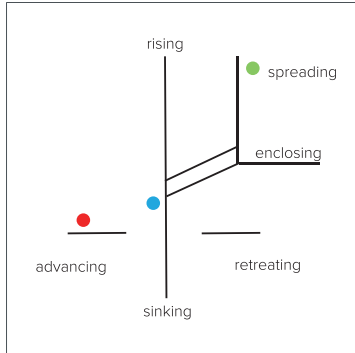
오늘은 처음으로 advancing(전진)한 걸음으로 걸었는데 오늘 걸은 장소가 숲 이라기보다는 공원 형태에 가까워서 빠르게 공간을 누볐다. 몸의 에너지도 rising(가볍다)했는데 오늘 걸은 곳이 준이에게 익숙한 곳이어서인지 장난 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벼운 에너지로 전달되었다. 몸은 가벼운 에너지와 연결되어 spreading(펼쳐있다)되어 있었고 자기몰입적인 모습보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컸다.

이준 관찰자 분석

오늘 물감을 사용하는 미술활동에서 준이의 장점이 최고조로 발휘되었다. 자신 만 붓이 없다는 상황을 금방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붓 대신 손바닥을 사용하면 어떠냐는 선생님 권유에 바로 수긍하였다. 손바닥에 닿는 물감 느낌이 부드럽고 미끈거려 재미있다고 매우 즐거워하였고 곧 자유스러운 표현을 펼쳐나갔다. 준이는 아이임에도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말을 예쁘게 하며 생각이 매우 자유로운 아이이다. 오일파스텔의 물성을 말해 주지 않아도 손가락으로 펼쳐서 발색하는 방법도 스스로 찾아냈으며, 다양하고 밝은 색상을 잘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어갔다.

<개인 Shape 분석>

정우현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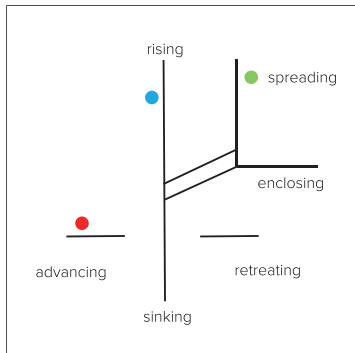
첨단 아미돌레길 생태공원 탐색활동

우현이의 몸 형태 분석

빠른 advancing(전진)의 걸음으로 걸으며 몸의 에너지는 다소 sinking(가라앉다)하였으나 지나치진 않았다. 박유정 선생님과 김가람 연구원과 함께 곤충과 도마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에너지가 눈에 띄게 rising(가벼운) 하였고 기록을 보일 때도 있지만 대체로 많이 가라앉진 않았다. 전체적인 몸의 형태는 매우 spreading(열려있다) 해 보인다.

정우현 관찰자 분석

개인 활동 때 집중했던 선생님들의 관심이 그룹 활동에서는 분산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올 수 있음에도 끝까지 감정을 컨트롤 하며 잘 따라주었다. 시작할 때부터 약간 긴장된 모습이 비춰졌지만 지난주 걷기 활동 때의 즐거운 기억이 강하게 작동했는지 감정을 잘 조절하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노력하였다. 그룹 활동으로 변경되면서 개인 활동에서는 겪지 못했던 대화, 관찰, 공유 등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얻은 듯 부쩍 대화가 늘어난 것이 관찰되었다. 특히 친구가 우현이 똑똑하다고 칭찬해주자 몹시 상기된 표정을 보이기도 하였다. 걷기 시작한 지 30분이 경과하자 발목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활동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주는 모습에서 우현이가 지금의 활동을 즐기며 좋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6일

첨단 아미돌레길 숲 탐색활동

우현이의 몸 형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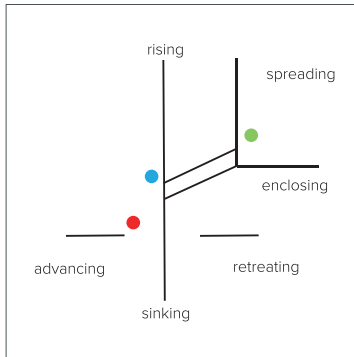
차분한 advancing(전진)의 걸음으로 걸으며 몸의 에너지는 상당히 rising(가볍다)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에너지의 상태가 긍정적이고 밝았으며 기분이 좋은 모습이었다. 감정 변화 없이 좋은 기분을 유지했으며 몸은 여전히 spreading(열려있다) 하는 것은 활동으로 인해 몸의 에너지가 솟구치면서 그러한 듯하다.

정우현 관찰자 분석

오늘 우현이는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활동에 대한 기대가 가득해서인지 즐거워 보였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다. 감정 변화의 특이점 없이 프로그램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미션 수행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바닥에 자신의 작품을 그려낸 후에는 해냈다는 성취감을 맛보았는지 표정이 더욱 밝아지며 적극적으로 친구와 선생님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였다. 걷기 시작한 지 30분쯤 되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발목 통증을 표현했으나 걷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자기탐구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콧등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도록 열심히 우현이 모습에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오늘 느낀 감각을 단어로 표현하기에서 우현이는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인지 선택 덤벼들지 않았다. 우현이의 연구 활동 진행에 있어 내적 동기화를 길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이 파악되었다.

<개인 Shape 분석>

정우현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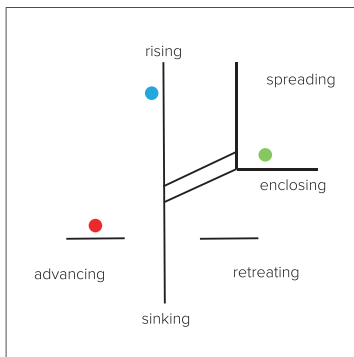
첨단 아미둘레길 우거진 숲 탐색활동

우현이의 몸 형태 분석

느릿한 advancing(전진)의 걸음으로 걸으며 몸의 에너지는 다소 sinking(가라앉다)했다. 허기 때문인지 에너지가 가라앉기도 했으나 끝까지 침착하게 걸으며 좋아하는 도토리나 자연물을 열심히 채집하였다. 친구와 함께 나란히 걷는 것은 완강히 거부하면서도 선생님과 나란히 걷는 것은 허용했다. 하지만 같이 걷는 것은 원하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자연물 채집할 때에는 매우 즐거워하며 에너지가 상승하였다. 몸은 이전보다 덜 spreading(열려있다)했는데 날이 흐리고 조금 추워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많이 열려서 걸어가지만 보편적 닫힘의 형태로 걷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우현 관찰자 분석

우현이는 프로그램을 횡수가 더해갈수록 나날이 기분이 좋아 보이며 얼굴이 밝아지고 있다. 오늘도 시작할 때부터 들뜬 표정이더니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로 프로그램을 참여하였다. 다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로 표현하지는 않고 주변의 상황을 살핀 후에 자기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 자주 관찰되었다. 채집활동 중 이끼를 담을 때 누가 먼저할 것도 없이 다른 친구들이 우현이를 불러 챙기는 모습에서 아이들 사이의 친밀감이 두터워지고 있음이 보였다. 아이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연대감과 친밀감 축적은 인솔 선생님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다. 우현이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도 기분과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스스로 잘 다스리고 있다. 친구들과의 자연스러운 공유경험과 친밀한 활동에서 오는 충족감이 마음근육의 건강하게 만드는 듯하다.



Shape qualities Graph 2024년 1월 18일

자함길("자연이 함께 한다", 첨단 아미둘레길 건너편에 위치)탐색

우현이의 몸 형태 분석

오늘은 우현이가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길을 직접 리드하면서 걸어서인지 지켜주려는 에너지와 배려 깊은 advancing(전진)의 걸음으로 걸었다. 몸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rising(가볍다) 했는데 또래와 함께 하는 분위기를 즐기는 에너지였다. 자신이 가이드하면서 보여 주고 싶었던 곳을 소개하며 다양한 걸음으로 걸을 때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즐겁게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몸은 적당하게 spreading(열려있다)했으며 이는 신체활동으로 인해 경직성이 풀려서 유연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정우현 관찰자 분석

자신이 직접 리드하며 "자함(자연이 함께 한다)"길을 소개한 우현이는 리더십을 심분 발휘하였다. 뒤 따라 오는 아이들의 속도나 방향을 틈틈이 체크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거나 방법을 제시하여 절충하는 모습으로 이끌었다. 우현이의 협의하는 태도는 자연에서의 함께 걷는 활동이 갈등을 해결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길렀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말로 걷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연적 자정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현이는 프로그램을 거듭할수록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이 감지되는데 오늘 우현이가 보인 리더십을 볼 때 걷기 예술 활동의 효과가 객관적 지표로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우현이는 차츰 감정 밸런스를 안정화해 가더니 오늘은 친구들과의 갈등을 조율하는 모습까지 변화를 보여주었다. 걸음걸이 변화주기 활동에서는 여느 아이들처럼 경쟁심에 따라 속도에 집중하긴 했지만 무겁게 걷기, 느리게 걷기, 낮게 걷기 등 지시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체를 조절하여 움직이는 것을 잘 수행하였다.

Shape 분석을 통해 드러난 어린이 연구원들의 변화

월계초등학교 어린이 연구원들과 함께 진행한 5일간의 걷기 활동 과정을 Shape qualities를 통하여 분석하고 기록하였다. 자연환경에서의 그룹 걷기 활동이 어린이 연구원들의 감정과 신체 에너지에 미친 영향 및 걷는 몸과 환경의 관계 맺기가 움직임과 에너지에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관찰하였다. 초기에는 저마다의 속도와 에너지 분포를 보이다가 시공간 공유와 소통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차 보폭과 걷는 속도, 에너지 흐름이 비슷해졌다. 어린이 연구원들의 감정과 에너지, 보폭이 조화되어 갈수록 일체감과 유대감이 형성되어 친밀감 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어린이 연구원들의 걷는 움직임의 변화는 다이어그램과 걷기 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룹 워킹 루트와 그룹 shape 분석>



2024. 01. 15. Walking Route



Still Form Symbol Set

Proposed Listenbee 4/2005 (After Laban)



1. Any Still Form

2. Linear Still Form

3. Flat Still Form

4. Round Still Form

5. Twisted Still Form

6. Tetrahedral Still Form

월계초에서부터
아이길 생태광장까지
코스 걸음

마을단지길을 걸을 때보다
숲길을 걸을 때 더욱 활기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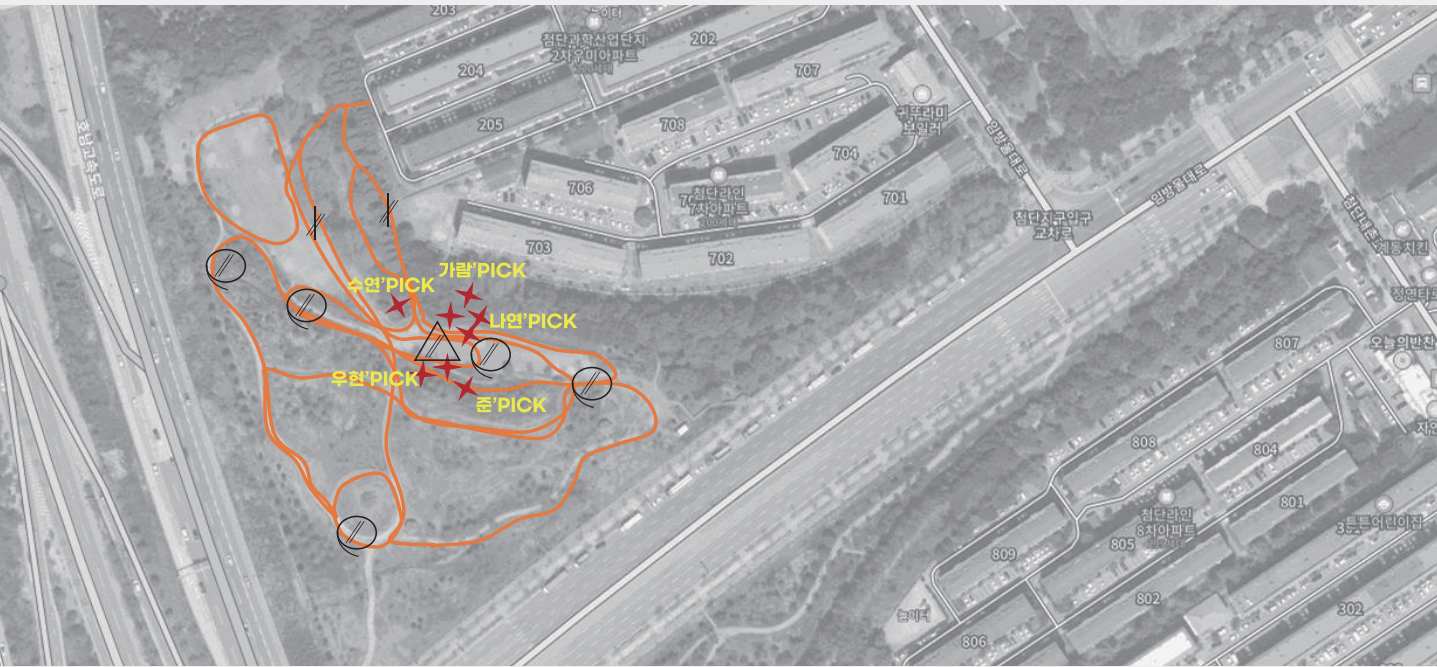
도로변 인도를 걸을 때는
방향의 평면형태를
이루며 걸음

좁은 숲길에서는
일자형 선형으로 걸음

넓은 광장에서는
각자의 걸음 형태가 나타나고
주위를 집중할 때에는
원형을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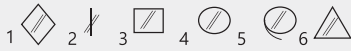
숲길과 광장을 걷는 중간에
준, 수연, 나연의
주의를 끄는 물건을 주움

2024. 01. 16. Walking Route



Still Form Symbol Set

Proposed Listenbee 4/2005 (After Laban)



1. Any Still Form
2. Linear Still Form

3. Flat Still Form
4. Round Still Form

5. Twisted Still Form
6. Tetrahedral Still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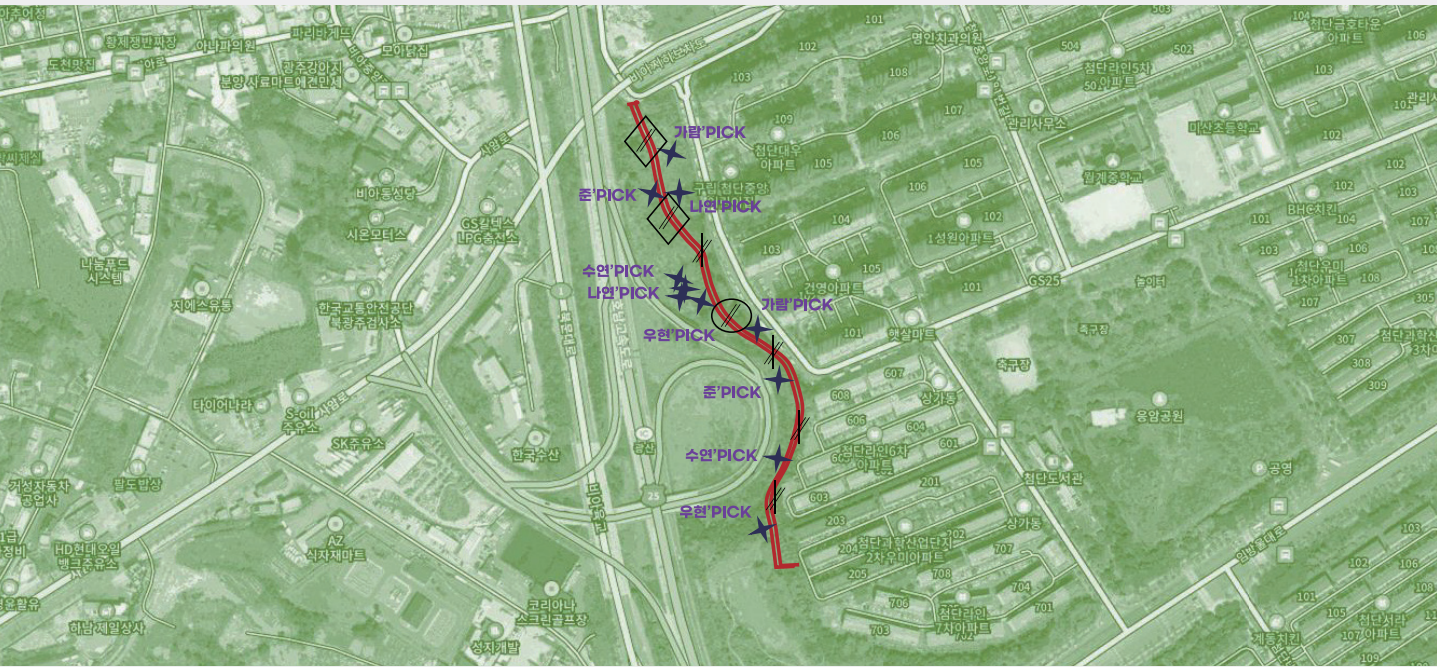
아미길 생태광장을
집중 탐색

건기탐험의 초반과 후반의
좁은 숲길에서는 일자형 선형의
형태를 이루며 걸음

막다른 길이나 반환길에서는
뒤틀리거나 꼬인 걸음의
회전현상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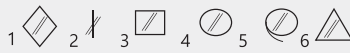
진흥바닥길에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입체적인 형상으로 지속적인 변형을 이룸

진흥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주변에서 다양한 사물을 주웠다 되돌려놓음



Still Form Symbol Set

Proposed Listenbee 4/2005 (After Laban)



1. Any Still Form

2. Linear Still Form

3. Flat Still Form

4. Round Still Form

5. Twisted Still Form

6. Tetrahedral Still Form

아미길 서북측
숲길을 집중 탐색

탐색하는 길 전반에 걸쳐
아이들의 자연물 수집이
다양하게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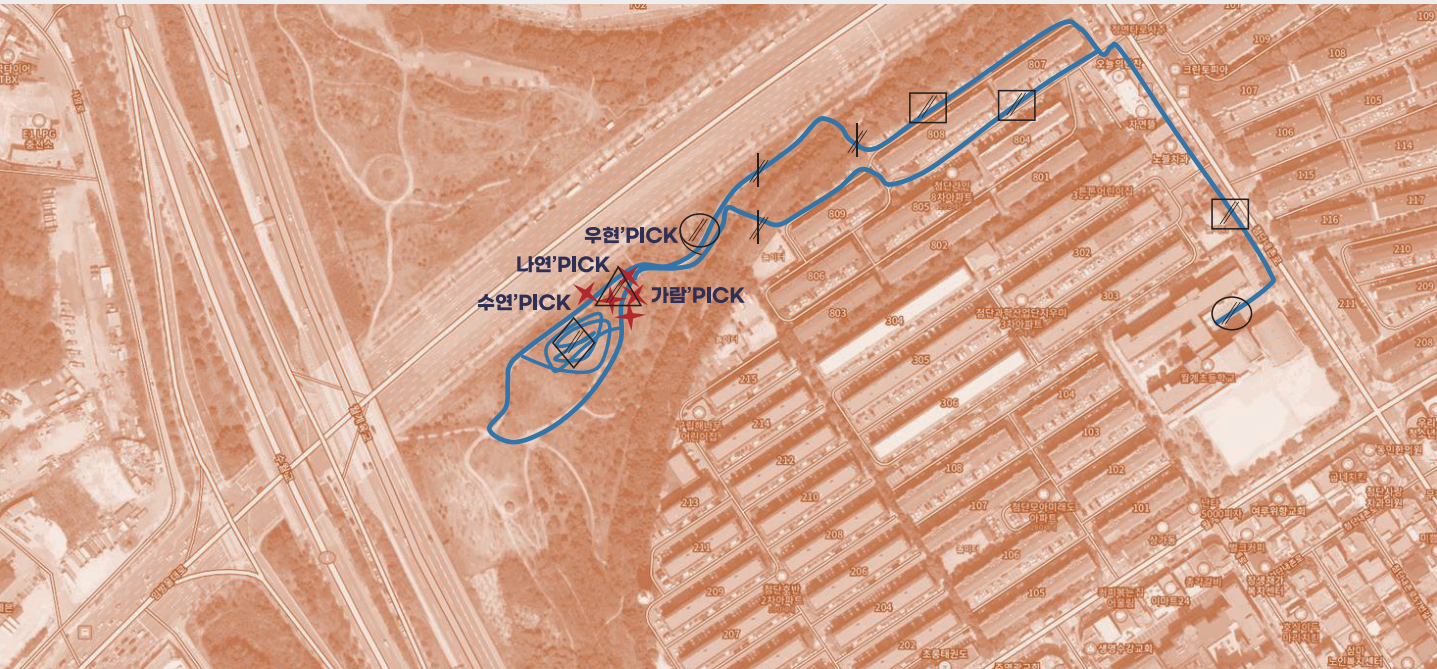
모두에게 관심이 있는
특이한 자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수집활동이 집중됨

전체적으로 좁고 굽은 숲길로
그룹은 전체적으로 일자형
선형의 배치를 이루며 걸음

중간에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집중하는
동안에는 원형의 형태를 이룸

기분이 좋은 수원은 중간에
뽕박겉음의 형태로 진행하고
나무마대기를 주운 준과 가람은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걸음
홍내를 내는 등 특정한 걸음 형식이
곳곳에서 나타남

2024. 01. 18. Walking Route



Still Form Symbol Set
Proposed Listenbee 4/2005 (After Laban)



1. Any Still Form
2. Linear Still Form

3. Flat Still Form
4. Round Still Form

5. Twisted Still Form
6. Tetrahedral Still Form

학교에서 출발하여 첨단
아미돌레길 건너편 어린이 연구원이
자함길(자연이 함께 하는 길이라는 의미)로
명명한 숲길을 어린이연구원의
가이드로 탐험함

비교적 넓은 길에서는 방형의
평면형태를 이루고 좁은 길과
다리나 문을 통과할 때는
선형이 나타남

탐험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그룹의 형태가 변화함

수집활동으로 주어진 시간에는
그곳의 주변에서
자연물 채집이 이루어지고
임체적인 그룹의 형태가 됨

탐험초반에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는 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A어린이의 발견에 집중하는
시간에는 변형된 원형이 나타남

다양한 걸음으로 걸어보기를
시도한 넓은 장소에서는
특정한 걸음의 형태가 중첩되는
선으로 나타남



걸음의 흔적

어린이 연구원과 우리가 함께 걸은 걸음 뒤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무수한 발자국이 쌓인 길 위에 우리들의 자취를 기록하여 본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을 때 나란히 늘어선 선으로 걸었고, 넓은 길을 걸을 때는 널따란 면으로 걸었다.

구불거리는 길에서는 뒤틀린 원을 이루었다가, 그룹 활동이 진행될 때는 3차원의 입체적인 모양으로 춤을 추었다.

어린이 연구원은 함께 걸었던 길 위에서 저마다의 소중한 만남을 가졌고, 걸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오감의 기억과 특별한 만남의 사물은 자신만의 예술 활동으로 표현되었다.

07. 2차년도(2023) 연구 총정리

시민걸음 탐구생활을 마무리하며

어린이들의 걷기 예술 과정 경험이 공동체와
지역에서 건강한 자원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RSVP라는 모델을 사용하여 걸음에 대한 모두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병리적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들의 시선과 함께 걸음을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린이들은 다섯 가지의 특별한 재능(창의성, 사람에 대한 직관력, 정서적 민감성, 살아있는 것에 대한 교감, 높은 에너지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강점이 충분히 발현되고 억압되어 있는 틀에서 벗어나 연구탐구자로서 동참하였을 때, 어린이들의 살아있는 경험은 우리의 일상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지침이 되어준다. 어린이들의 걷기 예술 경험은 회복적 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 안전하고, 일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걷기 예술 과정이 지역 공동체에 스며들게 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의 연구 동참은 계속되어지길 바란다.

시민걸음 탐구생활 랩장 오주현

08. 향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주현 랩장

우리의 걸음은 나, 너,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으로써 스스로의 동력을 가지고 있다. 이 걸음이 감각 및 창조성이라는 새로운 영역과 만났을 때, 회복적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작업으로 알 수 있었다. 걸음을 감각하고, 반응하고, 나, 너, 우리에게 연결되고, 확장되어 지역사회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변가람 책임연구원

어린이 연구자와 함께 걸으며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목격하였다. 또 또래 친구들과의 그룹 걷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걷기 예술 탐구 과정이 공동체 내에서 건강한 자원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어린이들의 걷기 예술 과정 및 경험이 도시의 자원으로 환원되어, 지역사회까지 확장 및 연결되기를 바란다.

김은정 전문연구원

함께 '걷기를 통한 감각하기'를 통해 개방된 공간에서의 혼자 걷기와 함께 걷기, 그리고 연구원들 간의 긍정적인 유대감이 그들의 자각을 확장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을 유도하여 적극적인 예술 활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 이런 활동들을 더 다양한 연령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유정 전문연구원

걷기의 여러 면면 중 우리가 집중했던 건 자신을 알아차림으로써 자연스럽게 들어온 타인이었다. 타인과 함께 걷는 즐거움을 알아가면서 공유하는 경험을 하고 이것을 예술로 표현했을 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다. 걷기와 예술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고 고민한다면 세상은 좀 더 건강해질 것이다.

박정은 전문연구원

일어섬에서 출발한 걸음에는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동작의 반복이지만 그 간단한 동작의 반복이 리듬을 만들고 리듬의 변화로 재미와 복잡함이 생겨난다. 우리는 걸음이 파생하는 내면의 상태를 살펴보고, 함께 걷는 반복된 걸음이 어떠한 즐거움과 효과를 얻는가를 알아보았다. 이제는 많은 걸음걸음을 전파해야 한다.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걸을 수 있는 여유를 생산하기를.... 걷고 싶은 환경과 걷기를 체험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한다.

송진주 전문연구원

이번 연구 과정에서 '걸음'이라는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일상의 작은 환기(換氣)가 되어, 평소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자아를 관찰할 수 있었다. 걸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할 수 있는 자아 예술 탐구 경험이므로, 많은 이들이 꾸준한 걷기를 통해 장기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조민영 전문연구원

미디어와 IT 기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의 시선을 자유롭게 열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이들이 보고 감각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당장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이들이 함께 걷고 웃고 숨 쉴 수 있는 자연으로 지금 용기를 내어 교실 밖으로 함께 걷기를 시작해 보자.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할 지혜와 자정의 힘을 믿고..

2023년 연구진 소개

오주현	세상에 변화의 씨앗을 심는 예술치료사 #예술치료 #공감미술 #포인팅
변가람	여러 가지 하는 N잡러 #글쓰기 #국문학 #아카이빙
김은정	한 걸음씩 다가가는 예술치료사 #음악치료 #커뮤니티워크 #공감미술
박유정	건강한 우리를 추구하는 연구인 #건강 #건강지도 #영양
박정은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건축가 #공간기획 #건강디자인 #커뮤니티예술
송진주	예술가의 마음을 읽고 표현하는 큐레이터 #문화예술기획 #전시기획 #시각예술
조민영	문화예술과 관행자를 친밀하게 이어주는 도슨트 #문화예술기획 #전시행실 #문화예술강의

2023년 어린이 연구원 소개

김가람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고 생각이 깊은 미래의 탐험가 #동물 #자연
김나연	배려심과 사랑이 넘치는 공경 예니지 센터 #시즈기 #무용 #글쓰기
양수연	조용하지만 열정이 가득한 공니우 #물 #공작지
이준	자연과 예술 앞에서 진지한 아이디어 붓고 #그림 #행위
정우현	곤충과 식물들 사랑하는 자연박사 #곤충 #식물

2024
2.1.THU -
2.7.WED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2층 205호

기적의 발걸음

THE MIRACULOUS STEP

Season 2. 시민예술팀구의 확장

굳은 손전,
공감과 시간을 쌓아올려
우리는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한다.

같은 행위는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삶을 아름답게하는 특별한 예술이자 여정으로써,
일상을 통해 나 자신이 주체가 되고 감각하여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으로 지난 22년 11월부터 한미평 시민예술팀구에서는 예술교육, 음악교육,
건축학, 인류학, 디자인, 문화예술기획, 사진, 문학작품의 원인 연구원도 도입 4
월을의 리듬 분석을 시작으로, 아토크레미(Arty) 연구 과정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의 발자취를 남겼다.

2022 한미평 전시 <지교, 당신의 걸음은>에 이어, 2023년 시민예술팀구에서는
예술치료, 음악교육, 건축학, 문화예술기획, 한국, 글쓰기, 시각예술 분야의 7인
연구원이 다시 재구성되어 RSOP Cycle과 관련한 움직임 분석이론을 기반으로, 일일
관련한 지역 특화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연구했다.

본 연구를 통해 '걷기'는 물리적 수단의 행위가 아닌, 자기 스스로 감각을 진지하고
보다 긍정적인 정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정의 움직임으로써, 삶에서 지속가능
하고 실천적인 예술적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본연구의 행위를 통해이전 연구결과를
실용적,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연구결과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24년 1월 8일-12일

1000 570
2000 4
1000

	2017	2016
营业收入	10,123,456,789	9,876,543,210
营业成本	6,789,012,345	6,543,210,987
营业利润	3,456,789,012	3,210,987,654
利润总额	3,567,890,123	3,321,098,765
净利润	2,678,901,234	2,432,109,876

[illegible][illegible]



시민걸음탐구생활

4 2023.12

공리소물다 <수학하는 물> 스터디

이 책은 강원도 화천의 시골 마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리서치그룹 '공리소물다'가 진행한 연구과정을 공유한 결과물이다. 이들은 '수학'을 통해 인간과 자연, 현실과 가상, 생명과 비생명, 의식과 비의식의 경계를 탐구하며, 몸을 통한 수학적 체험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라반의 움직임 에포트 체계와 바르테니에프 기초원리를 기반으로 한 물의 움직임과 수학적 체계를 연결시키며, 예술가들은 수의 세계를 탐구하고 몸을 통해 수학적 개념과 의미를 시각화한다. 또한, 일상 생활과 수학의 관련성, 정서와 물에서의 경험, 시간과 공간에서의 수학적 작동 등을 다루며, 예술을 통해 새로운 이해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여정을 기록했다.

<Walking with A/r/tography> 스터디

아토그라피(A/r/tography)*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걷기에 대한 탐구를 다룬 책이다. 아토그라피와 걷기에 대한 탐구가 어떻게 실행되고, 이론화되고, 경험되고, 확장되고, 개념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걷기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고민하고, 아동들이 탐색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한 디렉션, 도구, 매체 등 다양한 논의로 확장하였다.

*예술적 형식을 활용하지만 결과물이 아닌 실격의 통합, 협력적 실현, 지속적 연구과정이 강조되는 연구방법론



3 2023.11

워크숍 <예술기반 걷기를 통해 도시작업으로>
2023년부터 이어진 시민걸음 탐구생활 연구자들과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을 만나 워크숍을 진행했다. RSVPP와 도시의 회복적 자원의 연결, 국내 이야기가 나누어졌다. 워크숍 참여자와 전문지혜와 창조성을 구하고, 최일려에이션을 통해 장소 등의 논리가 이루어졌다.

<걷기의 인문학> 스터디

리베카 솔닛의 <걷기의 인문학>은 걷기라는 철학적이고 창조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탐역사에 기록된 다양한 인물, 공간, 사상 등을 통해 탐구하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새로운 담론을 제시한다. 책은 걷기의 의미, 걷기의 과학적 측면, 신체, 도시에서의 걷기, 걷기, 혁명과 걷기의 정치적 의미 등 다양한 행위가 인간에게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탐구한다.

5 2024.01

라반 무용동작분석 워크숍

라반 무용 동작 분석을 기반으로 움직임 에포트(Effort)탐구하고, 표현예술치료 및 예술기반 탐구를 통해 걷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캠프들은 함께 춤을 추고 시를 쓰며 에포트(Effort)와 웨이프(shape)등 라반 움직임 이론의 다양한 요소를 몸으로 직접 경험했다. 또한 다양한 감각과 장서를 가지고 걸어보고, 예술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과정을 가졌다. 라반 동작 분석을 통해 ADHD아동의 움직임 특성을 익히고, 움직임과 공간, 스토리텔링으로 응용 및 확장하며, 걷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완성하였다.

어린이 연구자와 걷기 및 예술 작업

학교와 연계하여 총 5명의 어린이 연구자를 모집하였다. 먼저 A어린이와 일주일 동안 걷기 및 예술 작업을 함께했다. A어린이가 걷고 싶은 장소와 시간을 직접 선택하게 하여 주체성을 경험하도록 하고, 걷는 후의 호흡과 심장 박동 등의 감각을 그림으로 기록하여 스스로의 몸을 감각하게끔 했다. 그 후 4명의 어린이들이 합류하여 시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에 집중하며 걷은 후 예술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변화

분석하고 기록하였다.
관계 맺기가 움직임과
공유와 소통의 시간이
확되어 갈수록 일체감과
있는 움직임의 변화는

04

서자의 Shape qualities: 처음엔 모래가 아닌 선과
관계를 맺고 했으며 전체적으로 자는 활착한 몸의
이 드러났다. 빠른 줄음의 형태였으며 모래에게는 큰
이 없었고 수용적이고 친절한 선에 가까운 몸이 열려 있는
나 있었다. 그러다 점차적으로 선 안에서 모래에게로
이 옮아갔는데 모래에게 몸이 열리기 시작했고 서로의
이 밑에서 태워지는 형태로 달라졌다. 무엇보다 서로의
이 밑에서 태워지고 비슷해지고 서로의 친절함이 느껴지는
으로 옮겨 시작했다.

오서의 Shape qualities: 감각에 대한 물의 개방성이 없었다. 필요해서 느껴져 된 감각들이 어떤 감각인지 되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물도 자연스럽게 가져와지는 게 바뀌어졌다. 감각을 열고 느낀다는 것은 신뢰가 하나든 철저적으로 자산을 느낀 감각을 공유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거부적인 움직임이 없었다. 수용적 개방적인 물의 형태도 변화되었다.

[illegible]

탐구생활

소스없이, 송백을 가지고 있다. 이 송백이
이 송백으로 전한데, 이 송백은, 송백이
송백이, 이 송백으로 전한데, 송백이

박유정

이것이 바로 '한인'을 의미하는 '한민족'의 기원이다.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1907년 을사늑약 체결 후 '한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한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한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조민영

[illegible]









10. 예술 기반 걸음 탐구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교안

해당 교안은 창의예술교육랩 '시민걸음 탐구생활'이 2년간에 걸쳐 걸음을 탐구한 연구과정을 토대로 도출하였습니다. 걷기를 통해 나의 감각을 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많은 지역의 발걸음 소리를 기대해 봅니다.

프로그램 목표

어린이들의 걷기예술과정 경험이 공동체와 지역에서 건강한 자원으로 환원되기 위한 실천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0-1. 개별 걷기 교안

프로그램명 나는 어린이 연구자, 걸음과 감각을 탐구해요.

교육 대상 아동 (초등 고학년 권장)

교육 회 차 4회 (회차별 2시간)

기대 효과 걷기를 통해 몸의 변화와 감각을 탐구하고, 창의성과 예술 표현 능력을 기른다.
어린이 연구자로서 스스로 활동에 대해 결정하고 연구에 동참하며 주체성과 책임감을 경험한다.

프로그램 구성

걸음과 함께 하는
감각 탐구

내가 좋아하는
길을 소개해요

드로잉과 함께하는
걸음 & 몸 탐구하기

다양한 걸음
관찰하기

(1) 걸음과 함께 하는 감각 탐구

걸음과 함께 하는 감각 탐구

활동목표	어린이 연구원이 걸을 수 있는 거리만큼 걷고, 몸의 변화 및 감각을 탐구해 본다.
준비물	운동화, 물, 장갑, 스케치북, 색연필, 오일파스텔, 사인펜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차림 등
진행내용	<p>1) 첨단둘레길(생태공원) 걷기 전, 준비물을 아동이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미리 소통한다.</p> <p>2) 걷는 거리는 아동이 스스로 정할 수 있고, 휴식 및 멈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아동 스스로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p> <p>3) 아동이 환경보다 걸음에 더욱 집중하도록 유도한다.</p> <p>4) 걷기 활동이 멈추면, 신체 감각 드로잉을 시도한다.</p> <p>5) 신체 모양이 그려진 드로잉 노트에 자유로운 드로잉 표현을 유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호흡은 어떤가요? - 나의 피부의 온도는 어떤가요? - 나의 심장박동은 어떤가요? - 나의 발바닥은 어떤가요? - 돌보고 싶은 신체 부위가 있다면 어디인가요? -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나요? <p>6) 드로잉 표현이 끝나면, 오늘의 걷기 소감과 내일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친다.</p>
성찰하기	<p>1) 아동이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걷는 리듬을 함께 하고 있나요?</p> <p>2) 아동이 일정한 보폭을 유지하며 걸었나요?</p> <p>3) 아동의 행동을 중재하기보다는 충분히 걸음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나요?</p> <p>4) 아동이 스스로 준비물을 챙겨올 수 있나요?</p> <p>5) 아동의 표현과 달리, 나는 어떤 감각과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p>
	<p>* 아동이 드로잉 표현 후, 감각을 표현하는 언어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표정이 그려져 있는 감정카드를 활용해 보세요.</p> <p>* 걷기 전, 아동 스스로 오늘의 날씨, 온도, 걸음 수, 바람, 몸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기록하도록 해주세요.</p>



(2) 내가 좋아하는 길을 소개해요

내가 좋아하는 길을 소개해요

활동목표	내가 좋아하는 숲길을 걸어보고, 길과 나의 몸의 감각을 탐구한다.
준비물	운동화, 물, 장갑, 스케치북, 색연필, 오일파스텔, 사인펜, 수첩, 연필, 마스크,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차림 등
진행내용	<p>1) 아동이 소개하고 싶은 길이나 걷고 싶은 숲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준비물을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미리 소통한다.</p> <p>2) 걷기 전, 아동 스스로 오늘의 날씨, 온도, 걸을 수, 바람, 몸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기록하도록 한다.</p> <p>3) 걸을 때, 아동의 길안내를 받으며, 길을 함께 걷는다. 걸을 때에는 서로 관심있는 자연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걷는다.</p> <p>4) 걷기 활동이 멈추면, 신체 감각 드로잉을 시도한다.</p> <p>5) 신체 모양이 그려진 드로잉 노트에 자유로운 드로잉 표현을 유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호흡은 어떤가요? - 나의 피부의 온도는 어떤가요? - 나의 심장박동은 어떤가요? - 나의 발바닥은 어떤가요? - 돌보고 싶은 신체 부위가 있다면 어디인가요? -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나요? <p>6) 드로잉 표현이 끝나면, 오늘의 걷기 소감과 내일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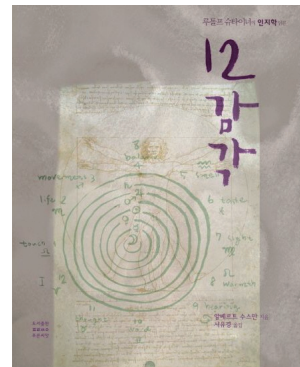
* 아동과 함께 걸을 때, 일정한 걷기 리듬을 유지하고 있는지, 걷기 리듬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하며 걷는지 알아차려보세요.

* 드로잉 표현이 서툰 아동들에게는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드로잉 형태의 작품을 골라 표현하도록 해주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부!

슈타이너의 <고유운동감각>과 관련하여 걷기를 탐구해 봅니다. 고유운동감각이란, 인간이 식물과 '다르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이 역동적인 힘의 원리를 인지학에서는 아스트랄체라고 합니다. 아스트랄체는 인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게 하고, 스스로 삶의 리듬을 찾아가고, 삶을 만들어가는 것과 연관됩니다. 아동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움직임의 뻗어나감과 다시 내려움을 인지하며 걷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보다 잘 찾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리듬 안에서 걸음을 통하여 채우고 비우고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활동은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삶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아동에게는 자신의 움직임을 탐색하고, 스스로 삶의 리듬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개별화된 공간(숲길,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며, 학교와 가정 환경에서는 아스트랄체를 채우는 삶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랩장 오주현-



(3) 드로잉과 함께하는 걸음 & 몸 탐구하기

드로잉과 함께하는 걸음 & 몸 탐구하기

활동목표 라반의 에포트 요소를 활용하여 걸음과 몸의 감각을 드로잉으로 더욱 깊게 탐구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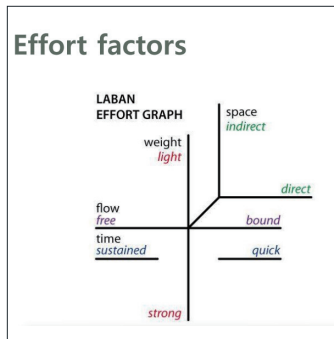
준비물 전지, 오일파스텔, 색연필, 물감, 파스텔, 다양한 음악파일, 오디오셋팅 등

- 진행내용**
- 1) 아동과 함께 지금의 신체에너지, 몸의 느낌을 나눈다.
 - 2) 아동과 함께 에포트 요소(누르기, 튕기기, 때리기, 뜨기, 비틀기, 미끄러지기 등)를 활용하여 다양한 걸음을 실내 공간에서 탐색한다. 아동과 함께 반대되는 느낌의 움직임을 서로 번갈아가며 표현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가볍게-무겁게, 빠르게-느리게, 높은-낮은)
 - 3) 움직임 활동 후, 나에게 가장 익숙한 걸음과 움직임, 낯설은 걸음과 움직임에 대한 몸의 느낌과 감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 4) 벽이나 바닥에 전지 2장을 연결하여 붙이고, 두 가지 종류의 걸음과 움직임을 드로잉하게 한다.
 - 5) 드로잉이 끝난 후에, 그림을 보고 감정카드를 사용하여 표현하게 하고, 상상되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 6) 그림의 제목을 붙이고, 에포트 그래프에 오늘의 활동과 관련되어 표식을 남긴 후, 소감을 나누며 마친다.


* 예술표현은 신체 에너지를 발현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회복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나의 걸음과 몸의 감각의 알아차림이 힘들거나, 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아동들과 어른들에게 추천하는 예술작업이다.

* 에포트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움직임의 질적 특성을 의미하며, 내적인 충동이나 마음의 상태, 내적인 태도가 움직임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포트는 선택과 선호도에 따라 개인의 스타일을 창조, 개발하며 개인의 심리와 정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라반 동작 분석가 이정미 -



(4) 다양한 걸음 관찰하기



다양한 걸음 관찰하기

활동목표	산책길에 걸터다니는 다양한 사람들의 걸기를 탐구해 본다.
준비물	에포트 분석지, 색연필, 연필, 지우개
진행내용	<div>1) 아동과 함께 에포트 요소(누르기, 튕기기, 때리기, 뜨기, 비틀기, 미끄러지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체크해보도록 한다.</div> <div>2) 산책길에 걸터다니는 사람들을 함께 관찰한 후에, 선생님의 분석과 비교해 본다.</div> <div>3)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낯선 발걸음은 무엇이였는지 나눈 후에, 두 걸음 모두 걸어본다.</div> <div>4) 직접 걸어본 후에 나의 몸의 느낌과 감각이 어떤지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나눈다.</div> <div>5) 오늘의 느낌을 다양한 색깔을 활용하여 드로잉으로 표현해보고, 제목을 붙인다.</div> <div>6) 또는 발걸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타악기를 활용하여 표현해 보며, 즉흥 음악을 만들어보고, 녹음을 하여 제목을 붙인다.</div>
<div>* 감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원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div> <div>* 관찰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첫 번째 작업이다. 관찰과 함께 나의 정서적 느낌과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나의 걸음을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는 풍성한 자원을 학습할 수 있다.</div>	

10-2. 그룹 걷기 교안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걸음, 모두의 감각

교 육 대 상 아동 (초등 고학년 권장)

교 육 회 차 5회 (회차별 2시간)

기 대 효 과 걷기를 통해 감각을 연결하여 연구대상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탐구정신과 감각이 깨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룹으로서 함께 할 때 관계성, 감정조절력, 창의성 등이 향상될 수 있다.

프로그램 구성



(1) 나의 감각, 나의 연구대상 찾기

나의 감각, 나의 연구대상 찾기

활동목표	걸으면서 몸의 느낌을 감각하고 걷는 곳에서 자신의 연구 대상 찾아보기
준비물	운동화, 장갑, 물, 스케치북, 색연필, 오일파스텔, 사인펜
진행내용	<p>1) 학교에서부터 왕복 20분 거리의 둘레길(생태공원)까지 걷는다.</p> <p>2) 걸으면서 감각을 깨우고 연구대상 찾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딱딱한 보도블록을 걸을 때와 질퍽질퍽한 바닥의 느낌은 어떤가요? - 불에 닿는 공기는 어떤가요? - 나무에선 어떤 냄새가 나나요? - 나의 몸이 어떤 느낌으로 변하는지 생각하면서 나의 연구대상을 찾아보세요. <p>3) 둘레길에서 학교까지 되돌아 걷는다.</p> <p>4) 간식을 먹은 후 걷기 중 발견한 연구대상을 그린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감각한 느낌을 떠올려보세요. 무슨 느낌이 들었나요? -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나요? - 소중한 대상이 떠올랐나요? - 걸으면서 찾은 나의 연구대상을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p>5) 연구대상 그리기가 끝나면 오늘의 걷기 소감과 내일도 운동화, 물, 장갑 등을 챙겨오도록 전한 뒤 활동을 마친다.</p>
성찰하기	<p>1) 그룹 안에서 만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인가요?</p> <p>2) 또래보다 선생님에게 의존하고 있진 않나요?</p> <p>3) 그룹 안에서 소외된 아동이 있지는 않나요??</p> <p>4) 그룹과 함께 걷는 선생님들은 어떤 감각과 감정이 느껴지나요?</p> <p>5) 충분히 감각하도록 시간을 주었나요?</p>

* 그룹이 연구대상을 찾지 못했다면 평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눠보세요.

* 걷기 전, 그룹의 개별 아동이 스스로의 컨디션, 날씨, 기분을 체크하고 기록하도록 해주세요.



(2) 나의 연구대상이 보는 세상, 듣는 세상은 어떨까?

나의 연구대상이 보는 세상, 듣는 세상은 어떨까?

활동목표 걷는 숲길에서 시각, 청각을 중심으로 감각하고 연구대상과 연결하여 예술로 표현하기

준비물 운동화, 장갑, 물, 핸드폰, 색연필, 오일파스텔, 사인펜, 색종이

- 진행내용**
- 1) 자동차를 이용하여 생태공원에 도착한 후 걷는다.
 - 오늘의 감각은 어떤가요?
 - 오늘은 연구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 나의 연구대상은 무얼 보나요? 무얼 보고 싶어 하나요?
 - 나의 연구대상은 어떤 소리를 들나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나요?
 - 눈과 귀를 최대한 깨워 감각을 열고 걸어보세요.
 - 2) 어제 찾은 연구대상이 주로 보는 것과 보고 싶은 것, 주로 듣는 것과 듣고 싶은 것을 찾아 핸드폰에 사진과 영상으로 담고 걸으면서 자연물을 채집하고 활동 중 느낀 감각과 떠오른 생각을 휴바닥에 그려본다.
 - 연구대상이 보는 세상과 듣는 세상을 최대한 상상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보세요.
 - 걸으면서 느낀 느낌을 휴바닥에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 3) 학교로 돌아와 간식을 먹고 오늘의 느낀 점을 단어로 표현한다.
 - 눈과 귀를 열고 감각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느꼈던 것을 색종이에 써보세요.
 - 4) 단어로 표현하기가 끝나면 오늘의 걷기 소감과 내일도 운동화, 물, 장갑 등을 챙겨오도록 전한 뒤 활동을 마친다.

- 성찰하기**
- 1) 충분히 감각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나요?
 - 2) 또래보다 선생님에게 의존하고 있진 않나요?
 - 3) 감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없었는지 점검했나요?
 - 4) 그룹과 함께 걷는 선생님들은 어떤 감각과 감정이 느껴지나요?
 - 5) 선생님의 생각으로 유도하진 않았나요?

* 그룹이 시각과 청각 감각을 여는데 어려워했다면 '내가 연구대상이라면?'이라는 상상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 걷기 전, 그룹의 개별 아동이 스스로의 컨디션, 날씨, 기분을 체크하고 기록하도록 해주세요.



(3) 나의 연구대상이 느끼는 세상은 어떨까?

나의 연구대상이 느끼는 세상은 어떨까?

활동목표 걷는 숲길에서 촉각을 중심으로 감각하고 연구대상과 연결하여 예술로 표현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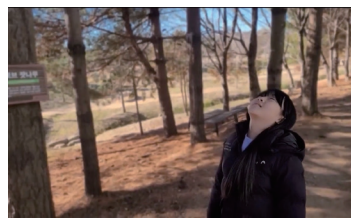
준비물 운동화, 장갑, 물, 채집물, 트레이싱지, 색연필, 오일파스텔, 사인펜, 테이프, 클루건

- 진행내용**
- 1) 자동차를 이용하여 첨단아미둘레길 중 나무가 우거진 숲에 도착하여 걷는다.
 - 오늘의 감각은 어떤가요?
 - 오늘도 연구대상의 입장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 나의 연구대상은 어떤 촉감을 느낄지 상상해보세요.
 - 나의 연구대상은 느낄 것 같은 느낌과 비슷한 느낌을 찾아 봅니다.
 - 많이 만져보고 많이 관찰하면서 느껴보세요.
 - 2) 숲길 곳곳의 나무, 풀, 돌 등을 만져보고 바닥의 질감들을 느껴보면서 연구대상이 느낄 것 같은 감각을 찾는다.
 - 나의 감각을 열고 다양하게 만져보고 느껴보세요.
 - 만져본 것 중 연구대상이 느낄 것 같은 느낌과 비슷한 것을 채집하세요.
 - 3) 학교로 돌아와 간식을 먹고 느낀 감각과 생각을 트레이싱지에 표현한다.
 - 연구대상이 느낄 것 같은 느낌을 찾았나요?
 - 찾은 느낌을 채집해 온 자연물을 활용하여 표현해보세요.
 - 4) 자연물로 표현하기가 끝나면 오늘의 걷기 소감과 내일도 운동화, 물, 장갑 등을 챙겨오도록 전한 뒤 활동을 마친다.

- 성찰하기**
- 1) 충분히 만져보고 상상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었나요?
 - 2) 또래보다 선생님에게 의존하고 있진 않나요?
 - 3) 선생님의 설명이 어렵진 않았나요?
 - 4) 그룹과 함께 걷는 선생님들은 어떤 감각과 감정이 느껴지나요?
 - 5) 자연물 채집에 사용할 도구를 점검하였나요?

* 그룹이 촉각 감각을 여는데 어려워했다면 채집해 온 자연물을 다시 만져보며 상상을 유도하세요.

* 걷기 전, 그룹의 개별 아동이 스스로의 컨디션, 날씨, 기분을 체크하고 기록하도록 해주세요.



(4) 나의 연구대상, 걸음걸이는 어떨까?

나의 연구대상, 걸음걸이는 어떨까?

활동목표 아동 중 한 명이 소개하는 길에서 다양한 걸음으로 걸어보고 자신의 연구 대상과 가장 비슷한 걸음 찾아 표현하기

준비물 운동화, 장갑, 물, 핸드폰

- 진행내용**
- 1) 학교에서부터 아동 중 한 명이 소개한 길까지 걷는다.
 - 오늘 소개할 길은 어디인가요?
 - 앞장서서 가이드를 해주세요.
 - 2) 넓고 평평한 곳에서 천천히, 빠르게, 가볍게, 무겁게 등 다양한 걸음을 걸어보고 자신의 연구대상과 가장 비슷한 걸음걸이 찾아 표현한다.
 - 천천히, 빠르게, 가볍게, 무겁게 걸어보세요. 한 번에 하나씩 해봅니다.
 - 걸었던 걸음 중 나의 연구대상과 가장 비슷한 걸음걸이로 걸어보세요.
 - 3) 학교로 돌아와 간식을 먹고 오늘의 느낀 점을 공유한다.
 - 연구대상의 걸음걸이는 어떤 걸음걸이였나요?
 - 나의 걸음과 비슷했나요? 달랐나요?
 - 4) 느낀 점에 대한 공유가 끝나면 오늘의 걷기 소감과 내일은 걷지 않고 그동안 채집해 온 자연물을 활용해 대형작품을 만들 것이라 전하고 활동을 마친다.

- 성찰하기**
- 1) 또래들과 어울리며 걷는지 점검했나요?
 - 2) 다양하게 걸을만한 공간을 잘 설정했나요?
 - 3) 선생님의 설명이 어렵진 않았나요?
 - 4) 그룹과 함께 걷는 선생님들은 어떤 감각과 감정이 느껴지나요?
 - 5) 날씨를 살펴가며 적절하게 진행했나요?

* 그룹이 다양하게 걷기 어려워한다면 함께 걸으며 시범을 보여주세요.

* 걷기 전, 그룹의 개별 아동이 스스로의 컨디션, 날씨, 기분을 체크하고 기록하도록 해주세요.



(5) 그동안의 경험, 예술로!

그동안의 경험, 예술로!

활동목표	일주일동안 걸으면서 느꼈던 감각을 개인 혹은 공동작품으로 표현하기
준비물	자연 채집물, 캔버스, 오일파스텔, 물감, 붓, 팔레트, 글루건, 테이프
진행내용	<p>1) 5일 동안 느꼈던 감각을 떠올려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느꼈던 감각들을 떠올려보세요. 본 것, 들은 것, 만진 것 등 그동안의 느낌을 떠올려보세요. <p>2) 개인 혹은 공동의 팀이 떠올린 각자의 감각을 캔버스 위에 물감과 오일 파스텔, 자연 채집물로 표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이 떠올랐나요? - 혼자해도 좋고 공동으로 협업하여 표현해도 좋습니다. - 물감으로 바탕색을 칠한 후 다 마르면 오일파스텔과 자연 채집물로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 자연 채집물이 떨어지지 않게 글루건 등으로 잘 고정하세요. - 협동팀은 잘 상의해서 작업하세요. <p>3) 작품을 만든 뒤 간식을 먹고 별도의 공간에서 한 명씩 인터뷰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부터 한 사람씩 개별 공간에서 인터뷰를 할 거예요. - 원하는 사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소감을 표현하면 됩니다. <p>4) 개별 인터뷰가 끝나면 그동안의 마음을 전하고 작품을 정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활동을 종료한다.</p>
성찰하기	<p>1) 그룹 모두 적절한 경험을 했는지 점검했나요?</p> <p>2) 그룹의 유대감이 잘 형성되었나요?</p> <p>3) 함께 했던 선생님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p> <p>4) 강요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살폈나요?</p>

* 개별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도 함께 하는 느낌이 들도록 소통하면서 작품을 만들도록 해주세요.

* 그동안의 활동이 잘 마무리 되도록 마지막 인사를 잘 하고 종료해주세요.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

시민걸음 탐구생활 연구 결과보고서

발행처

[시민걸음 탐구생활]

랩 장 오주현
책임연구원 변가람
전문연구원 김은정 박유정 박정은 송진주 조민영

담당부서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이메일 gjarte@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gjarte.or.kr>

편집·디자인 스튜디오 깊은

*해당 프로젝트는 '2023창의예술교육랩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기적의 발걸음

The Miraculous Step